

계간 북한 지역연구

가을
2023

통권 제2호

이번호 주제: 강원도 원산시(元山市)

해안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관광도시 원산의 과거와 현재

‘강원도 정신’과 ‘원산의 기업’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신(新)복음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3 가을 통권 제2호

이번호 주제 : 강원도 원산시(元山市)



06

02 권두언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열매는 영속적이다.



21

06 해안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28

28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사무국장)
‘강원도 정신’과 ‘원산의 기업’



33

33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48 김병욱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북한학 박사)
신(新)복음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Cover Story

2000년대 초반 동명산 중턱을 깎아
내고 세워진 일명 ‘동명동 아파트단
지’. 가운데 가장 높은 동은 30층에
이르는 원산의 랜드마크이다.



54

54 김철성 교수 (목원대학교)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67

60 조용규 (조희렴 목사의 차남, 전 국회의원)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67 원산의 이모저모



70

70 원산의 사람사는 이야기

81 원산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
당신의 꽃은 어디서 피었습니까?



84

84 언론에 비친 원산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원산소식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량,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3년 10월 10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열매는 영속적이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이번 북한지역연구지는 원산과 그 주변 지역을 살펴봅니다. 원산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1880년 강제 개항이 되었고, 이후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 북한의 지하자원인 무연탄,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금 등을 일본에 실어 나르기 위한 철도가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산까지 건설되었습니다. 원산은 함경도에 소재한 조그만 포구이었으나 그 지정학적 입지가 일본 식민당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대규모의 수산물가공 및 운송이 이루어지면서 함경도와 구소련 연해주 지역까지 해로 및 철도운송이 확산하는 북쪽 지역의 중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캐나다 토론토대학 졸업생이며 YMCA에서 활동하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와 그의 후배이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1892년에 원산으로 보내시고, 1893년과 94년에 윌리엄 맥길 의료선교사와 윌리엄 스왈른 선교사를 원산에 보내셨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미국 북 장로교 선교부에 소속이 되었고, 하디 선교사는 의료선교사로서 남 감리회 선교부로 옮겨서 목사안수까지 받으며 단순히 의료사역뿐 아니라 만주 간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순회선교사로서 교회 개척 사역에도 전념하였습니다. 1898년 연합선교사 공의회를 통해 선교지역 분할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북 장로교 선교부는 원산 지역을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이관하였습니다. 북 감리회 선교부는 원산 지역을 남 감리회 선교부로 이전하였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는 북 장로교 선교부의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가 합류하여 성진, 청진, 함흥 및 종성과 구소련의 연해주 지역까지 선교기지 및 선교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다. 남 감리회 선교부도 원산을 기점으로 강원도 및 함경도 지역에 선교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주목할 일은 동아기독교의 창설자가 되는 말콤 펜윅이 1891-93년까지 원산에서 농업선교사로 활동하였고, 이후 캐나다로 귀국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1896년도 원산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거점으로 조선순회선교단과 후에 합류된 엘라싱 선교회를 통하여 전국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말콤 펜윅 선교사의 활동은 한국침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일본제국주의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함경도 북쪽 지역으로 한국인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원산은 북한의 신의주와 유사한 북동 지역의 관문 도시로서 북음의 확산과 교회의 설립 네트워크 중심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로 하여금 1903년 원산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와 제임스 패커가 말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부흥의 은혜를 체험케 한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에서 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들과 한국인 동역자들 가운데서 꽃을 피웠고, 절정의 열매를 맺었으며 전국적으로 교파의 경계선을 넘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공산화된 이후에 원산지역에서 일어났던 교회 부흥의 시작과 북한 북동 지역의 북음화에 거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그런 영적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된 것일까요? 원산지역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보안 처리 이후에 글을 씁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북한 북동 지역의 광대한 지역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뿌리와 연결망과 사역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누룩 같은 확산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절하나 장엄한 순교자의 행전을 발견합니다. 남아있는 교인들도 혹독한 불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시기에 동아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재림 주로서 고백하다가 일제 군국주의자들에게 교단이 해체되었고, 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주의자들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재림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지하에 숨어있는 교인들을 반역죄와 국가전복죄로 처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북한지역의 교인들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 각오의 신앙 정신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엽에 함경도 북쪽 지역의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교인들의 연결망과 활발한 신앙 활동과 가까운 중국 연변 지역의 친인척을 매개로 한 교인들의 비밀스러운 교제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적발이 되었고, 이 분들 중 많은 분이 사회적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 모두는 광산 관련 일꾼들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일종의 제한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처형당하는 순간 모두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찬송을 부르다가 얼굴과 전체 모습에서 아름답고, 기이한 빛을 나타내며 장엄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이후에 200여 명의 비밀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 200여 명의 사라진 신자들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교인들의 연결망에는 2,000명이 넘는 비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개가 그루터기 뿌리 신자들로써 북한의 북동 지역 대다수의 주요 도시 안에서 비밀거점을 만들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 중에 몇은 활발하게 신앙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한 분이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고 부르니까 잇몸을 부수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처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신자들은 두려움과 신앙의 위축 대신에 먼저 순교한 분들의 순결하고, 고귀한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신앙이 굳세어지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남은 교인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면서 스스로 신앙 활동을 하였습니다.

말콤 펜윅과 연관이 된 한 가정의 3대째 신앙을 지키던 중에 교인으로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서 조부로부터 받아 온 1919년에 원산에서 출판된 관동어 신약성경과 복음찬미집을 받아서 3대째 보관하고 있다가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에게 오래전에 전달해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간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원산에는 로마 카톨릭 소속의 독일 베네딕트수도원의 독립교구가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조성한 농경지와 조경수목과 수도원 건물이 그대로 원산농업대학으로 이관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산에는 덕원 베네딕트 수도원의 선교 유산으로 비밀리에 몸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 자신을 나타내고, 카톨릭 교회에서 출판한 성경을 깊숙이 숨겨놓고, 신앙 활동을 하는 비밀 카톨릭신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원산에서 시작이 된 장로교, 감리교, 동아기독교, 성결교, 구세군

교회의 복음선교사역은 북한 북동 지역의 많은 도시와 장소들 가운데서 뿌리를 내렸고, 원산은 전국적인 교회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며 교인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희가 일본의 니카타에서 원산으로 향하는 만경봉호를 타고, 그녀의 부모를 따라서 원산으로 왔습니다. 고영희는 만수대예술단의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김정일의 부인이 되어서 삼남매를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원산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원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의 원산 사랑은 각별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김정일 특각을 대규모로 개축하고, 송도원 해수욕장과 갈마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도원 호텔을 국제적 수준의 호텔로 개축하고, 갈마군용비행장을 일반 민간 국제비행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상에 마식령산맥이 있는데 이곳에 국제적 규모의 스키리조트를 건설하였습니다. 원산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개발이 될 뿐 아니라 강원도의 세포 축산지구와 금강산과도 연계하여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산에 있는 북송선을 타고 온 재일교포들의 거주지역, 북한 주재 중국화교들의 교육중점지역과 외항선 선원들의 정박장소로서 원산은 바다와 연결된 항구도시로서 국제적인 접촉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실한 선교사와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의 열매로서 원산의 교회들과 교인들 그리고 원산에서 시작이 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산과 주변 지역의 숨어있는 많은 교인을 돌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기도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산화되기 이전 과거 일제강점기에도 원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공산화 된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저희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

해안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들어가며

강원도 원산은 동해안의 항구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이다. 과거 원산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18세기말부터 명태를 말린 북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서울과의 왕래가 빈번해졌고 도시규모가 성장했다. 1880년에 있었던 원산항 개항, 1914년 있었던 경원선 개통으로 인해 원산은 함경남도 남부는 물론 강원도 북부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이 시기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원산을 왕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 사이에 원산해변-금강산이 알려지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된다. 해방 이후 1946년에 있었던 북한의 강원도/함경남도 간 구역조정으로 인하여 원산은 강원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어 행정적 지위도 갖추게 된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경제특구’라 하면 남한사람들은 주로 라선과 신의주를 떠올린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일관되게 경제특구로 육성하고 있는 곳은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언론에 “강원도정신”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2016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군민발전소를 시찰한 뒤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칭찬하며 나온 말이 바로 “강원도정신”이다. 해안도시로서 어업과 관광업,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적 지위에 더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애정이라는 상징권력이 더해진 원산은 북한 내에서도 특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산의 행정구역과 교통, 주요 기관과 산업체들에 대해 살펴본 후, 개항 이후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발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1. 원산의 행정구역

해방 이후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강원도의 철원 북부, 양구 북부, 고성 북부와

이천, 김화, 평강, 회양, 통천군은 북한에 속하게 되었다. 북한은 1946년 9월 기존의 강원도에 함경남도 안변군과 원산시를 포함시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었는데, 이 때 문천군 덕원면과 안변군 서곡면 북부가 원산에 합쳐져 지금 원산이 되었다. 해방직후 1년간 철원에 있던 북한의 강원도 도청(도인민위원회)도 1946년 9월 행정구역 개편 시 원산시로 옮겨진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 중 인구로 보아 평양(310만), 청진(65만), 함흥(54만)의 세 도시는 여타 도시들과 분명한 격차를 보이는 대도시이다. 이 도시들의 뒤를 이어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로 신의주(36만), 원산(36만), 남포(36만), 개성(31만), 사리원(30만) 등 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들이 있는데 원산도 그 중 하나이다.¹⁾ 원산은 동해에 연하여 남동쪽으로는 안변군, 남서쪽으로는 법동군, 북쪽은 문천시와 접하였다. 원산만의 중심에 위치한 원산항과 서쪽으로 원산역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내에 위치한 45개의 동과 외곽의 14개 리로 이루어졌다. 앞바다에는 여도, 신도, 대도를 비롯한 11개의 작은 섬이 분포한다. 해안을 따라 북쪽에는 구한말 이후로 한반도의 대표 해안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송도원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품은 갈마지구가 있다. 원산의 면적은 314.4km²로 북한의 8개 도 소재지 중 면적에 있어서는 평성시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2. 원산의 교통

원산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개항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항구도시 중 부산이 처음으로 개항하였고 이후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된다. 1880년에 개항한 원산에는 외국의 상인들이 들어오고 점포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무렵 러시아 상선과 일본 상선의 경유를 위한 정기항로가 원산에 개설되었다. 원산항은 1910년에 해면을 매립하여 창고 시설, 하역장을 세웠으며, 북쪽에서 오는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563m)를 건설하였다. 이후 증축공사를 통해 연간 화물처리능력 40만 톤 규모의 항구로 발전한다. 항로의 개설로 조선인들 역시 바닷길을 이용하여 남해와 서해의 도시까지 왕래하기 시작했다. 1914년 경원선 철도가 완공되기 이전까지 원산의 교통은 바닷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조선에 정착한 초창기 선교사들의 자료를 보면 선교사가 조선에 상륙하여 서울에서 적응기간을 거쳐 원

1)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3. 08.10)



산으로 이주할 때, 짐은 제물포를 통해 원산까지 배편으로 보내고 몸만 육로로 이동하곤 하였다. 경원선의 개통과 함께 항만의 중요성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경원선과 원산항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원산항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1939년에는 화물처리량이 85

만 톤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동시에 원산항의 능력이 한계에 달하였다. 1936년부터 연간 15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목표로 6,0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완공하지 못하고 끝났다.²⁾ 현재의 원산항은 1만 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고, 1일 하역능력은 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가타를 오가는 만경봉호도 원산항에서 출항하였다.

구한말 일본과의 근접성이 원산의 항만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과의 근접성은 원산의 철도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일제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한반도 북부에서 생산되는 주요 지하자원(무연탄, 금, 철강)을 필요로 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요한 자원은 무연탄이었는데 일제는 무연탄 공급기지로 평양에 연료창고를 세웠고 이에 대한 반출을 위해 평양-원산 철도를 부설한다. 평-원선 부설계획이 1920년에 수립되어 오랜기간 지연되었으나 결국 1941년 개통되었다.³⁾ 원산으로 향하는 또 다른 철도는 함경선(咸鏡線)이다. 함경선은 함경남도 원산시의 원산역과 함경북도 종성군에 있는 상삼봉역(현재 온성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그 길이는 664.0km였다. 1914년 원산역-영흥역 구간이 착공되었고 1928년 완공되었다. 이 두 노선을 통하여 일본에서는 생산량이 매우 적지만 한반도 북부에서 많이 생산되는 자원들, 이를테면 무연탄, 텅스텐,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지하자원이 원산에 모여 일본

으로 향하게 된다.

평양-원산고속도로는 평양시 사동구역에서 상원·연산·곡산·신평·법동을 거치며, 길이는 172km에 이른다. 이 도로는 북한군 공병부대에 의하여 1972-1978년 사이에 건설되었는데,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중앙분리대 1차선을 포함하여 5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산간지역에는 2차선으로 건설되었다. 경제적·군사적 활용성 이외에도 원산-금강산지역 관광수송객 통행에 이용되었다.⁴⁾ 2010년 이후로 원산을 다녀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찍은 고속도로 주행영상들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북한은 원산과 80km 떨어진 함경남도의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함흥과도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노력해왔다. 1990년에 북한에서 나온 지리전서에도 원산-함흥간 고속도로의 건설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2014년 북한이 발간한 원산 소재 현동공업개발구 투자 제안서에는 원산-함흥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이에 대한 소식이 없었으나 2018년 10월 30일 북한 대외경제성은 원산-함흥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⁵⁾ 당초 이 공사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글어스 지도를 보면 도로 건설을 위해 닦아 놓은 노반은 10년 가까이 그대로이며, 산간지역에는 나무가 자랄 정도로 방치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이 쌓인 형상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장 접근 통제는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원산-우암, 원산-김화, 원산-금강산, 원산-동포 간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북한은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에 따라 일제강점기 때부터 군용
으로 활용됐던 갈마비행장을 2013년부터 2년간의 공사 끝에 2015년 원산국

2) 이찬우,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 라이프인, 2020. 05. 28.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96> (검색일: 2023. 09. 01)

3) 이찬우,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원산~함흥 고속도로… 北, 中자본으로 추진, 조선일보, 2019.01.1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0395.html (검색일: 2023. 09. 11)



원산의 주요 기업소와 공장,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 12. 28)

제비행장(민간공항)으로 개발했다. 북한의 공항 중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 공항코드를 부여받은 공항은 순안, 원산, 선덕, 삼지연, 어랑, 의주의 6개 공항이 있는데, 원산공항은 그중 두 번째의 규모를 자랑한다. 2013년부터 있었던 공사를 통해 원래 있던 2,400m의 활주로는 3,000m 이상으로 연장됐으며, 동쪽 부지에 3,500m의 신활주로가 추가로 마련됐다. 현재는 12대의 비행기와 연간 120만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3. 원산의 산업현황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원산은 개항 후 관광,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1930년대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1930년대 초반부터 10년 이상 함경도 연안으로 정어리 떼가 몰려왔다. 정어리는 기름의 원료가 되는데 함경도 동해안의 도시에 정어리기름 생산공장들이 무수히 들어서게 되고 함경도에서 생산된 기름은 함경도 물류의 중심지인 원산으로 모인다. 정어리기름은 글리세린, 다이나마이트, 폭탄, 일반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데 원산에 이와 관련된 공장들이 생겨났다. 이리하여 원산에는 1930년대부터 항구노동자만이 아닌 공장노동자도 증가하였다.

북한의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원산의 공장들도 생산공장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원료공장, 기계공장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 운송 물류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효율성 측면만이 아닌 김일성의 교시와도 일맥상통한다. 김일성은 공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원료와 제품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원산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원산항과 원산역을 축으로 하는 도심지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원산은 북한의 여타 대도시들과 달리 대규모 화학공장이 배치되지 않았다. 원산화학공장, 원산 가성소다공장 등의 중소규모 화학공장만 있을 뿐이다. 대신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조선소와 관련 기업소들, 해산물 가공이 이루어지는 식료품 공장이 발달하였다.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관할주체에 따라 중앙급, 도급, 시·군급으로 나뉜다. 그중 원산시에 소재한 중앙급 기업으로는 6월4일 철도차량연합기업소, 원산조선소, 원산선박수리공장, 충성호뜨락뜨르공장, 원산뜨락뜨르부속품공장, 원산 봉화피복공장, 송도원은하피복공장 등이 있으며 중앙급 기업소 이외에 유명한 공장으로는 갈마식료공장과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 있다.⁷⁾ 이 중 갈마식료공장은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공장으로서, 원산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갈마식료공장에 들어가서 냉동식품과 갖가지 통조림, 젓갈류로 가공된다.



‘관광대국’ 목표 북한, 김정일이 타던 ‘관광용 키트’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십 대를 생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 출처: KBS 2020.5.11.

4. 원산의 관광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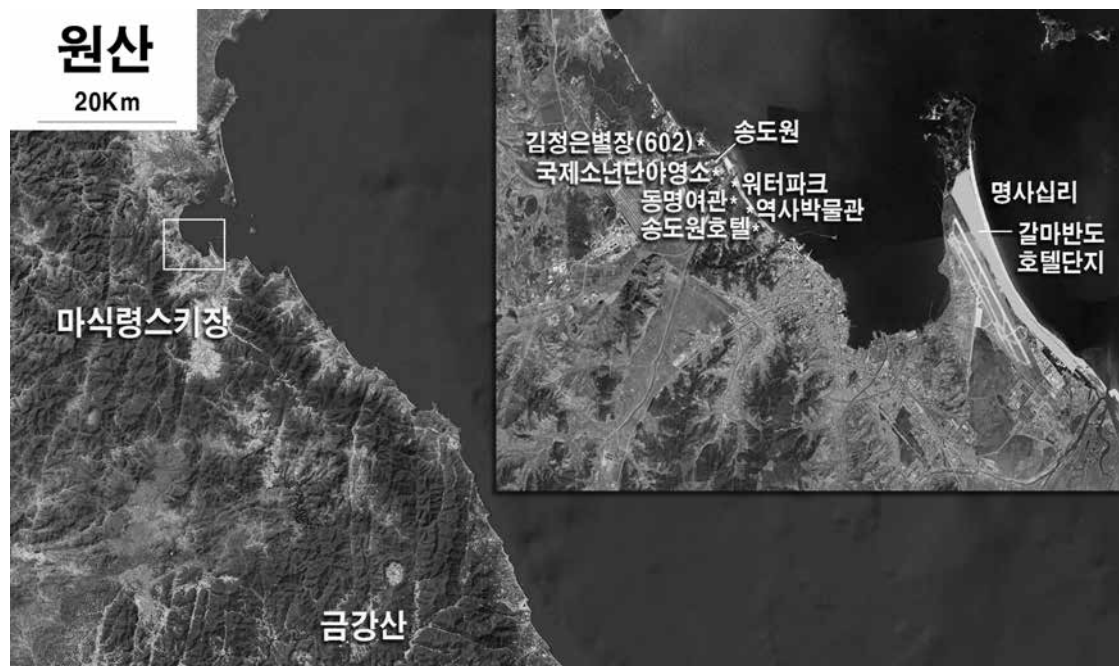
1910년을 전후하여 서구에서는 장거리여행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 서구의 여행문화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원산은 일본과 왕래가 잦은 항구도시로 경치가 좋은 모래사장이 많았고 금강산과도 가까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게 인기 관광지로 부상한다. 만해 한용운은 1929년 〈명사십리〉라는 기행수필을 썼는데 그 글에는 “원산 바닷가에 외국인 별장이 20여 채 줄지어 서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만큼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의 관광도시로서 외국인들에게 각광을 받은 곳이 원산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관광-휴양 도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는 원산이 유일했다.⁸⁾

공산정권 수립 이후 북한에서 관광은 자본주의적 요소로서 부정적으로 인식

6) 최대식,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조성사업 리뷰,” 『북한토지주택리뷰』 2호,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2018), p. 54.

7) 김영희, “북한 원산지역 산업개발 현황과 특징,” 『KED북한개발』 24호 (서울: KED산업은행, 2017), pp. 70-72.

8) JTBC(두도시이야기) 제작팀, 『두도시 이야기』, (중앙일보플러스, 2019), p. 181.



원산과 주변의 주요 관광지,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됐다. 북한은 관광을 산업적 접근보다는 인민의 권리나 학습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런 이유로 1970년대까지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였고 대표 관광지인 원산도 이렇다 할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북한은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수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국가관광총국이 설치되고 이후 신의주(1987), 온성(1988), 만포(1991) 등 주로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관광을 비준하던 것이 1992년 평양관광으로 확대되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몇몇 도시들과 평양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1996년 원산, 해주, 청진이 외국인 단체관광코스로 개발되었다.⁹⁾ 원산의 유명한 해변으로 송도원과 명사십리가 있다. 원산 주민들은 700여 년 전부터 바닷바람과 모래의 이동을 막기 위한 방풍림으로 거대한 소나무 숲을 조성했다. 그 중 원산북부지역의 솔밭은 그 길이가 1.3 km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을 송도원이라고 부른다. 송도원은 솔밭과 더불어 해수욕장이 유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1916년 우리나라 최초로 수영강습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갈마반도는 원산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태로, 송도원과 갈마반도 끝지점의 직선거리는 6km, 육로로 돌아갈 경우 15km에 이른다. 갈마반도는 원산시 동부에 남에서 북으로 뻗은 반도로서, 길이는 약 6km, 평균너비는 약 1km

이다. 갈마반도는 본래는 섬이었으나 남대천에서 흘러온 화강암 퇴적물 축적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반도가 되었으며, 원산만의 자연적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북쪽의 호도반도와 함께 영흥만을 안고 있으며 갈마반도가 만들어낸 원산만에 원산항이 자리하고 있다. 명사십리는 갈마반도 끝에서부터 남쪽으로 펼쳐진 백사장이다. 희고 고운 모래를 뜻하는 ‘명사(明沙)’가 십리(十里)나 계속된다고 하여 이 곳의 이름은 명사십리가 되었다. 이 곳은 백사장 이외에도 5월에 피는 해당화 꽃바다로 유명하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워 마라”는 민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별한지 몇 해나, 두고 온 원산만이 해당화 곱게 피는, 내 고향은 명사십리”라는 백설화의 노래 〈명사십리〉도 유명하다. 매년 5월이 되면 백사장 못지않게 펼쳐진 해당화밭의 자태와 향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북한은 이곳을 천연기념물 제 193호로 지정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원산의 관광산업은 일관되게 강조, 추진되고 있다. 2013년 11월 김정은에 의해 원산-금강산 지구 총계획이 비준되었고, 2014년 5월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개최된 경제개발전문가토론회에서 이 총계획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가 공식 발표되었다. 5월의 발표에서는 갈마반도지구가 포함되었으나, 6월의 발표에서는 그 대신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가 들어갔다.¹⁰⁾ 이 지역들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중심을 이루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즈음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는데 이 개발계획은 원산 시내, 갈마반도, 석왕사 등 3개 지구에 대한 복합개발이다. 갈마반도에는 2018년부터 1400여 헥타르(ha)부지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의 여파로 공사가 지체된 끝에 결국 2022년 11월에는 호텔과 위락시설로 추정되는 150여 개 건물의 외관이 완성되었다. 갈마반도는 크게 숙박구, 회의 전시 박람회, 체육오락구, 경제개발구, 상업편의 봉사구 등으로 구분된다.

5. 원산의 시장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

9)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변화,” 『KDI북한경제리뷰』, (세종: KDI, 2019), pp. 31-34.

10) “北,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공식발표”, 통일뉴스, 2014. 6. 1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76> (검색일: 2023.09. 07)



원산의 시장,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로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관리 부서 역시 부재하였으나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 있다. 곡물 100원, 채소(남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¹¹⁾ 그러나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보면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원산은 평양, 함흥, 청진, 신의주, 평성, 남포와 함께 1등급 도시로 분류되는데, 1등급 도시의 장세는 1일 기준 2017년에 북한 돈 1,000원 - 3,000원이던 것이 코로나 통제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2년 9-12월에는 1,800-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²⁾

11)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12)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64, 65.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2022. p. 150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지역구분	위치	시장이름	면적(㎡)
원산도심	율동	율동시장	10,581㎡
	신흥동	신흥동시장	9,794㎡
	갈마동	갈마동시장	15,052㎡
세길지역	세길동	세길동시장	1,680㎡

원산에는 공식적으로 네 개의 시장이 있는데 율동, 신흥동, 갈마동, 세길동에 위치해 있다. 이 중 신흥동시장은 상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했는데 과거 대로였던 곳을 시장으로 바꾼 특이사례에 해당한다. 율동시장의 경우 2017년 13,581㎡이었던 것이 2018년 10,581㎡로 3,000㎡가 축소되었다. 율동시장은 기존의 유희부지까지 시장으로 활용해왔으나, 2017년에는 밭, 2018년에는 약 50가구의 주택(하모니카식)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시장이 활용하던 유희부지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율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쪽의 관풍동, 신풍동, 북쪽의 와우동, 덕성동, 평화동지역에 큰 규모의 주거단지가 접해 있어 시장 수요가 상당히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부지이용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¹³⁾ 점이다.

6. 원산의 대학들

원산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이 있다. 강원도 원산시 세길동에 위치해 있으며, 1960년 1월 경제관리부문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래 명칭은 원산경제대학이었으나 1990년 10월 31일에 정준택경제대학으로, 그 후 정준택원산경제대학으로 개칭하였다.¹⁴⁾ 학교 명칭에 들어간 정준택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 북한의 계획경제를 이끌던 경제참모였다.¹⁵⁾ 북한에는 37개의 중앙급 대학이 있는데, 경제대학으로는 평양에 위치한 인민경제대학과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의 두 학교가 중앙급 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다.

2019년 노동신문에 “2019년 4월부터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기업관리인

13)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120.

14)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CultureDetail.aspx?mc=CC> (검색일:2023, 08, 30)

15) 이찬우, (칼럼)정준택원산경제대학의 정준택은 개성사람이었다?, 2020, 06, 03,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41> (검색일: 2023. 8. 30)



북한 학생들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사진: 북한선전매체 '서광' 홈페이지 캡처)

재양성반(MBA)'과정을 개설해 전국에서 국영기업체, 기업소 등에서 선발한 30대~40대 초반 간부 100여명을 선발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북한이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북한식 MBA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 대학이 북한에서 경제분야 교육과정이 우수한데다 캐나다 등 해외에서 연수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⁶⁾ 북한의 자본주의 경제교육과 창업관련 강좌는 오랜 기간

북한당국의 신뢰를 얻어온 싱가포르 NGO인 <조선익스체인지>가 주도해 오고 있는데, 정준택원산경제대학 MBA의 온라인과정 개설에도 이 단체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출신 김영희 박사(남북하나재단)는 본인의 대학시절을 회상하며 <<당신의 꽃은 어디서 피었습니까(한울, 2016)>>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1980년대 말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의 학생들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 보도된 원산경제대학 관련 뉴스에 2023년 5월 정준택원산경제대학 경영학부 2학년학생 한 명이 수업시간 교수에게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질문을 한 사건이 소개되었다. 당시 담당 교수는 "그런 식의 질문은 자체가 잘못됐다", "공부를 헛했다"라는 등의 말로 엄하게 꾸짖을 뿐 학생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이를 본 학생들은 "교수가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아니냐"라며 수군거리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¹⁷⁾ 젊고 순수한 엘리트들이 모인 경제대학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서 말한 김영희박사의 책에도 교과서에 나오는 모순을 지적하는 학생의 상식적인 질문에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교수의 모습을 그린 에피소드가 있다.

원산에는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이외에도 중앙급 대학이 두 개 더 있는데 바로 원산수산대학(동해수산대학)과 원산농업대학이다. 수산대학은 산하에 수산학부, 어로학부, 수산물가공학부, 양어양식학부, 기계공학부 등 학부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수산부문의 기술자 재교육 시스템과 수산부문 대학, 전문학



원산의 주요 대학.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 12. 28)

교 교원강습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등 수산 전문부(수산고등학교)가 병설되어 있다. 기본 학제는 5년제이며 전문실습을 많이 요구하는 학과들은 5년 6개월제로 되어 있다.¹⁸⁾ 또 다른 중앙급 대학은 원산농업대학이다. 원산농업대학은 본래 덕원신학교가 있던 자리에 개교하였다. '덕원자치수도원구'는 일제강점기까지 독일계의 베네딕도 수도원이 직접 운영하던 조선 천주교계의 주요 거점이었고 그 산하에 성직자 양성기관으로 세워진 곳이 덕원신학교였다. 북한의 공산화 후 1945년 11월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로 덕원자치수도원구의 신자들 50여명이 수감되었고 수도원의 재산도 공산당에게 빼앗긴다. 공산당은 덕원신학교의 시설을 몰수하여 1948년 그곳에 김일성종합대학 농학부를 발족하고 이후 원산농업대학으로 개칭한다. 천주교 성직자들에 의해 조성되어 정성껏 가꾸어진 이 곳 캠퍼스는 지금도 아름답게 이어져 천연기념물인 원산금술나무, 종비나무, 느티나무 등 250여 종의 나무 수십만 그루를 갖춘 모습을 자랑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 첫 공개 행보가 바로 2009년 4월 원산농업종합대학 시찰이었고 북한이 대흥단 감자와 함께 자랑

16) 北, 대북제재해제 대비..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첫 간부 MBA 과정 개설. 2019. 9. 25.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5> (검색일: 2023. 08. 30)

17) 정준택원산경제대학 교수들, 학생 질문 회피·금지해 논란, 데일리 엔케이, 2023. 06. 12, <https://www.dailynk.com/20230612-1/> (검색일: 2023. 08. 22)

18) [북한의 대학] 수산물 자원 관련 인재양성, 원산수산대학, 평화문제연구소, 2012. 6. 8, <https://blog.naver.com/ipa1983/159446635> (검색일: 2023. 8. 30)

하는 단독1호감자가 바로 원산농업대학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졌다. 대학 졸업장을 얻기 힘든 북한에서 중앙급 대학이 아니어도 대학 자체를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원산의학대학과 원산사범대학도 입시수요가 많은 대학들인데 작년 초 강원도의 대학입시결과가 발표된 후 원산사범대학, 의학대학등의 입시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신소가 이어져 이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¹⁹⁾ 그 밖에도 원산에는 이수덕원산교원대학, 조군실원산공업대학, 원산체육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다.

7. 원산의 구금시설

원산은 도인민위원회 소재지로서 강원도 각급 기관들이 위치한다. 강원도의 교화소 역시 원산에 있는데 교화소의 이름은 <88호 교화소>라 불린다. 개소 시에는 남성 죄수들만을 수용했으나 2007년부터 여성도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강원도 원산 석현동에는 노동단련대 성격의 88호 교화소가 있다. 대북 인터넷 전문매체인 AccessDPRK는 2021년 3월 7일 보도에서 이 시설이 1985년경부터 운영됐으며, 수감 인원은 1,000명~1,500명 정도이고, 지금은 시설을 축소 또는 폐쇄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88호 교화소는 김정은 전용 원산별장에서 5.0km, 원산시로부터는 6.5km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원산 교화소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2011년 시설이 공개된 이후 탈북민 증언도 없고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바 없었으나,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C)에서는 2017년 보고서에서 이를 수용소 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88호 교화소는 최근 수감동 시설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또는 분리된 것으로 관측됐는데, 수감자들이 인근 채석장에서 노역하는 노동단련대로 운영되어 오다가 일반 구류시설로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근에 대규모 체육시설단지가 들어서면서 외부 노출과 주변 이목 등을 고려해서 취해진 조치로 추정되며, 교화소 수감자들이 타지로 이전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제소 및 국제사회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용소 관련 시설을 타지로 이동했거나 축소 변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⁰⁾ 집결소는 기본적으로 여행구역 이탈자, 부랑아 등을 조사하며 해당 거주지로 이송되기 전에 집결하

는 곳이다. 재판과정 없이 6개월내지 1년간 수용 가능한 곳이다. 집결소는 각 도 인민보안국 관할이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리하는 집결소도 일부 있다. 원산의 집결소는 신흥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²¹⁾

8. 강원도정신과 김정은의 원산사랑

김 위원장은 2016년 12월 원산 군민발전소 시찰 당시 "강원 땅에 능력이 대단히 큰 발전소를 또 하나 건설한 강원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 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면서 이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때부터 북한의 각종 언론에 강원도정신이 등장하는데, 북한의 언론이 정의하는 강원도정신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으로 알려진 도시로서 김정은시기에 들어 언론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부각되는 북한의 도시이다.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후계 작업이 한창이던 2009년 원산농업대학 주변 (동해)바다 쪽으로 경치가 무척 좋은 곳에 위치한 소위 602라 불리는 별장에 대한 대대적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정보당국에 의하면 2년간 이 별장 수리를 위해 북한정권은 135억원을 투입했다고 한다.²²⁾ 후계자로 거론되던 김 위원장이 아버지를 수행한 기록이 문서로 처음 발견된 곳도, 그의 정확한 이름이 확인된 곳도 역시 원산이다. 2020년 봄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멈춰 건강이상설이 제기되었을 때 그는 원산에 머무르며 야외활동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몇 년새 국가급의 중요한 행사들이 원산에서 자주 열리고 있다. 2020년 9월 강원도 김화군이 수해를 입었을 때 김정은이 현장으로 달려가 주택 복구 및 신축 상황을 행진 일, 강원도출신 당간부들의 약진 등 강원도가 부각되는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리하여 지금에 와서 '강원도정신'은 김정은의 강원도사랑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강원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지 (2017년 1월 24일, 노동신문 사설)

19) “입시 결과 불공정해’ 신소 빚발쳐…강원도당, 때늦은 대학 검열” 데일리 엔케이, 2022.04.21. <https://www.dailynk.com/20220421-1/> (검색일: 2023. 8.30)

20) 정성학, [하늘에서 본 북녘] 원산 88호 교화소, 노동단련대→구류시설로 변경 추정, 데일리 엔케이, 2022. 11. 29, <https://www.dailynk.com/20221129-3/> (검색일: 2023. 09.11)


21) Prisoners in North Korea Today, 2011, NKDB. p.83.

22) 北, 김정은 고향 원산시 ‘인민청소’, 주간동아, 2009. 12. 09

나가며

위에서 우리는 원산의 공간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원산은 강원도의 인민위원회 소재지로서 강원도의 중심지이다.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개항된 항구도시이며, 해안도시로서 어업과 관광업이 발전하였다. 구한말 이미 외국인들이 다수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1980, 90년대에 이미 러시아인,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북송재일교포가 다수 정착하여 시내 주요지역에는 재일교포 출신 주민의 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인데, 이들 중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 연결선이 남아있다. 원산은 일본과의 접점이 되는 도시이다. 북일관계의 어려움으로 북한-일본 사이의 왕래가 많이 줄었으나 이후 북일관계 개선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도시로서, 북일관계와 관련하여 눈여겨 보아야 할 도시이다.

송도원, 명사십리, 마식령스키장, 금강산을 보유한 원산은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를 대표하는 휴양지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인들을 비롯한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휴양지였으며, 북한정권 수립이후에도 매년 여름 원산의 송도원 해수욕장에서는 일광욕을 즐기는 러시아인들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시기 국경이 닫혀 외국인의 왕래가 어려웠지만 이후 국경 개방시 최근 개발된 갈마지구를 비롯한 원산의 관광자원이 어떻게 활용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강원도정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어나고 어린시절을 보낸 곳으로,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휴가를 보내는 곳, 와병 시 요양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독재국가 북한에서 지도자의 의중은 한 도시의 발전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은이 말하는 ‘강원도정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원산을 비롯한 강원도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관광도시 원산의 과거와 현재

진희권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개항과 근대도시 원산의 탄생

원산은 조선의 두 번째 개항 도시로 부산에 이어 1880년 강제 개항되었다. 개항 이전, 원산은 덕원부(1895년 덕원군으로 개칭) 소속으로 덕원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구였다. 해안선이 육지를 향해 완만한 호를 이루고 있어 선박의 정박에 유리한 지형으로 일찍부터 포구가 발달하고 어업기지로 성장하였다.¹⁾ 조선 후기부터 동해 북부 연안의 명태 어획량이 증가하며 명태어업과 집산지로, 함경북도 상업 발달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²⁾

개항과 함께 원산에는 일본인 영사관과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원산의 일본인 거류민은 청일전쟁(1894년), 러일전쟁(1904~05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1910년에는 4,696명에 이르렀다.³⁾ 개항과 함께 대외무역도 개시되었다. 원산을 통한 무역액은 1884년 약 21만5천 엔(円)에서 1902년 약 290만 엔(円), 1926년에는 약 2천7백만 엔(円)으로 백배 이상 증가하였다.⁴⁾ 원산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물과 사금이었고 수입은 소비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섬유제품의 비중이 높았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항만,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 개보수도 이어졌다. 1906년부터 방파제, 창고, 세관청사, 하역장 축성 등 항만 공사가 본격화되었으며, 1914년에는 경원선(경성-원산)이 개통되었으며 함경선(원산-함경북도 종성) 건설에 착수했다. 1926년에는 평원선(평양-원산), 1927년에는 동해안을 따라 함경선에 이어지는 동해선 공사가 착공되었다. 일제강점기 시행된 제1기 치도사업 기간(1911~17년) 경성-원산, 평양-원산, 원산-회령 등 1등도로와 원산-양양 간 2등도로도 개설되었다. 위와 같이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었던 원산

1)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p. 247.

2) 위의 책, pp. 27~28에 따르면, 조선 전기 문헌에는 명태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획량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17세기경부터 동해 북부의 북청, 신평 앞바다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어획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청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대중어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3) 전우용, “원산에서의 식민지 수탈체제의 구축과 노동자계급의 성장”, 『역사와현실』, 제2권, 1989, p. 27.

4) 위의 논문, p. 38.

은 개항과 함께 동해안 일대 최대 무역항,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당시 조선 전체의 6대 도시로 성장했다.⁵⁾

관광도시 원산의 성장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30년대 평원선 열차를 타고 원산의 명사십리를 여행하고 수필을 남겼다. 최근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투자를 진행했던 그 곳이 바로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다. 한용운 선생은 당시 명사십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해안의 남쪽에는 서양인의 별장 수십 호가 있는데 해수욕의 절기에는 조선 내에 있는 서양인은 물론 일본, 상해, 북평(北平)⁶⁾ 등지에 있는 서양인들까지 와서 피서를 한다 하니 그로 미루어 보더라도 명사십리가 얼마나 한 명구(名區)⁷⁾인 것을 알 수가 있다.”⁸⁾

일제강점기 원산을 여행했던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Isabella Bird Bishop)⁹⁾는 원산의 일본인 거주지역을 깔끔하고 튼튼한 저택, 영국과 일본 스타일이 혼합된 영사관, 유럽의 상품들이 판매되는 상점, 양복을 입은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가 들어서 있어 조선에서 제일 깨끗하고 매력적인 거리라고 평했다.¹⁰⁾ 서양인이 보기에 서양문명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원산은 서울과 전신이 통했고 일본체신회사의 선박편이 일본의 나가사키, 고베, 중국의 홍콩과 상해, 천진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왕래했다.¹¹⁾

위와 같이 원산은 개항 이후 일본인 유입, 무역 확대, 교통발전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토대로 일제강점기에 이미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송도원

은 인천의 월미도, 부산의 해운대와 함께 조선의 3대 유원지로 명성을 떨쳤다.¹²⁾ 1923년 6월에는 원산지역 유지들의 발기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원산해수욕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호텔, 대여별장, 골프장 등을 운영했다.¹³⁾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원산폭격

1945년 해방과 함께 원산은 원산부(元山府)에서 원산시로 승격했다. 1946년 9월에는 함경남도에서 강원도로 이관되면서 북강원도의 소재지가 되었다. 분단으로 강원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강원도는 인구도 적고 경제력이 작았기 때문에 공업지구인 문천(제련소, 제강소, 시멘트, 탄광, 석탄전용항)과 대도시 원산을 함께 강원도로 통합해서 원산을 중심으로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다.¹⁴⁾ 이후 북한은 원산을 철도, 해운, 교육, 문화 4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송도원에는 모든 인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송도원휴양소’가 개설되었다.

6·25전쟁으로 북한의 산업은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특히 원산은 조선 최대 규모의 원산정유소가 있었고, 1949년 창설한 북한 해군의 중추 임무를 수행하던 제2 위수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으며,¹⁵⁾ 북한 동부권 최대 철도기지였다. 군사적 요충지이자 산업과 물류의 중심도시 원산은 공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휴전 후 원산 시내에 온전한 건물은 단 2채에 불과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¹⁶⁾ 원산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원산폭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원산은 폭격을 당한 대표적 도시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그림 1〉원산해수욕주식회사의 송도원호텔 / 자료: <https://www.flickr.com/@Moravius>(검색일: 2023.9.15).

5) 김원, “북한의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5권 4호, 1990년, p. 124에 따르면 1920년 원산의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서울(24.7), 부산(7.3), 평양(5.8), 대구(4.4), 인천(3.5)에 이어 전국 6위였다.

6) 북경, 즉 베이징을 뜻한다.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에서는 “산수가 좋아 널리 이름난 고장”이라고 그 뜻을 풀이하고 있다.

8) 방민호 엮음, 『서울에서 원산까지 경원선 따라 산문여행: 명사십리에 해당화 필 무렵』, (서울: 예옥, 2020), p. 291.

9) 1831년에 태어나 1904년에 사망한 영국의 여행가, 작가이자 지리학자. 1894년부터 4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11개월간 답사했다.

10)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파주: ㈜살림출판사, 1994), p. 204.

11) 이찬우,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上)”, LIFEin, 2020.5.28,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96>>.

12) 손환, “일제강점기 원산송도원의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6호, 2008년, p. 2.

13)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위 손환의 논문 참조

14) 이찬우,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中)”, LIFEin, 2020.6.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42>>.

15) 박희성,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군사연구』, 147권, 2019년, p. 96.

16) 김범수, “원산개발과 남북 강원도 통합 관계성 연구”, 『한백통일경제연구』, 창간호, 2020년, p. 235.



〈그림 2〉한국전쟁 중 파괴된 원산시 전경 / 자료: 박동민, “전후복구기 원산의 계획안과 재건, 1953-196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7권 제4호, 2021, p. 165.

원산의 재건: 항구·휴양 도시, 원산의 재탄생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은 원산시의 복구를 준비했다. 1953년 8월 28일 ‘원산시 복구 총 기본계획도(초안)’가 발표되었다. 계

획에 따라 기초적인 도시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1958년에는 내각결정 68호, ‘원산시를 동해안의 항구 및 문화 휴양도시로 건설할데 대하여’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1960년에는 250명 수용능력의 ‘송도원중앙소년단야영소(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개장했다.¹⁷⁾ 1960년대 중반에는 야외극장, 동물원·식물원을 갖춘 유원지, 어린이 놀이장, 휴양여관이 건설되었고 해수욕장이 확장되었다.¹⁸⁾

〈표 1〉 내각결정 68호 주요 내용(1958년)

주요 내용
① 전망인구를 15만 명으로 보고 기존 시가지를 복구하여 주시가지로 구성 ② 송도원과 양일천 하류 일대에 휴양지구 건설 ③ 원산수산사업소 동쪽 해안 일대와 갈마일대를 기본 산업지구로 조성 ④ 건물의 층수는 4-5층과 단층 ⑤ 현 철도선과 여객선의 위치변경, 장백산을 중심으로 문화휴식공간 조성, 중심부 해안과 송도원을 연결하는 해안 녹지대 건설 ⑥ 시 건설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1958-1961년을 제1차 복구 기간으로 정함
주요 개발사업
① 역전거리, 해양거리, 해안거리의 재정비 ② 송도원, 송청동계곡, 관동팔경, 금강산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 종합관광 개발 ③ 해안일대의 휴양소 건설 ④ 시가지 확장 및 포장 ⑤ 해수욕장 시설 현대화 및 편의 봉사시설 증설

자료: 엄형민·류승환, 『북한의 도시개발 편람』,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2), pp. 181-183.

김일성 주석은 1972년 3월, 강원도당 전원회의에서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원산은 “아름다운 휴양도시이며 유망한 항

구도시”라며 수산사업소와 조선소 외 바닷가에 있는 공장들을 옮기고 원산항을 잘 꾸릴 것을 지시했다. 또한, 명사십리가 위치한 갈마반도에 유원지와 휴양소, 호텔을 지어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남북왕래가 실현되면 갈마반도를 개방할 수도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¹⁹⁾

1980년대 북한은 급속하게 불어난 대외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²⁰⁾했다. 1984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채택하며, 관광산업을 합영대상의 하나로 중시하며, 그간 금지했던 서구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했다. 1986년에는 관광산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국가관광지도총국’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평양고려호텔을 준공하는 등 대도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 맛이를 준비했다.²¹⁾ 1987년 3월에는 금강산-원산-송도원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발표하고, 5월에는 외국인 여행가능장소로 평양과 원산을 비롯한 6개 시(청진, 남포, 함흥, 개성)와 3개 명산지(금강산, 백두산, 묘향산)를 발표했다.²²⁾

이처럼 북한은 원산의 정체성을 항구와 관광·휴양도시로 설정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무엇이었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원산 관광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시대 원산 개발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다. 북한은 2014년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를 포괄하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립을 발표했다.²³⁾ 이후 북한은 중국 선양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사무소를 개설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북한 측 설명에 따르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에는 140개의 역사유적, 10여 개의 해수욕장, 670개의 관광명소가 있으며, 7개 분야 70개의 투자 대상이 있다고 한다.

19) 김일성, “강원도당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65.

20) 김일성, “신년사(1980.1.1.)”, 『김일성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7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 동원하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무역의 폭을 넓혀야” 한다.

21) 신정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p. 138.

22) 국립개발연구원, 『동북아권 국토개발연구Ⅴ, 북한의 국토개발 편람』, (서울: 국립개발연구원, 1992), p. 344.

23) 조선중앙통신, 2014.6.12, “조선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



〈그림 3〉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계획 / 자료: 동아일보, 2018.5.19, “北, 스위스식 관광개발 시동...교통 인프라 개선이 관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519/90151620/1>.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발표를 종합하면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내에 포함되며, 2014년 발표되었던 기존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2016년에 추가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16년에 원산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중동토지종합개발 투자제안서’를 발표하며 ‘원산시 중심부건설계획’을 언급했다.²⁶⁾

〈표 2〉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중점 개발계획

구분	면적	중점 개발사업
원산지구	74km ²	호텔, 해양체육 및 문화오락 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종합관광지
마식령스키장지구	22km ²	녹색형 체육관광 리조트
울림폭포지구	10km ²	생태 관광지
석왕사지구	15km ²	역사유적 관광지
통천지구	94km ²	호수 및 치료, 해안 관광지
금강산지구	225km ²	산악형 경치 관광지

자료: 권태상 외, 『부산의 남북 협력도시 선정 및 협력방안』, (부산연구원, 2021), p. 62.


24) 조선중앙통신, 2016.7.15, “갈마지구가 관광지로 꾸러질 전망”.

25) 로동신문, 2018.1.1, “신년사”.

26) 통일뉴스, 2016.9.2., “고층 살림집 2000세대, 국제금융청사 등 건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994>에 따르면 “원산시 중심부 건설 계획에 따라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한대서 핵심부로 되는 중동을 상업중심구역(CBD)으로 종합개발하여 원산시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며 전반적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중동토지 종합개발 계획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대상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초호화급 5성호텔인 원산호텔과 금융종합청사, 사무종합 청사, 과학연구종합청사, 국제전람장, 문화회관, 역사박물관, 도서관, 해안유희장, 수족관 등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게 된다”며 “이 지역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원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포함한 ‘갈마지구’가 호텔, 해양체육, 문화오락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러지게 된다고 보도했다.²⁴⁾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²⁵⁾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수차례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장을 방문하며 건설을 독려했다. 하지만 공사는 완공 시기를 연장(2019년 4월 15일 → 2019년 10월 10일 → 2020년 4월 15일)하였으나 현재도 미완성 상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나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에 대한 구체적 개발이나 투자와 관련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기대만큼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세계적 항구문화도시, 휴양관광도시 원산을 향한 북한의 오래된 꿈이 언제나 실현될 지 모르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참고

■ 단행본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국립개발연구원 『동북아권 국토개발연구』, 북한의 국토개발 편람. (서울: 국립개발연구원, 1992).
권태상 외, 『부산의 남북 협력도시 선정 및 협력방안』, (부산연구원, 2021).
방민호 엮음, 『서울에서 원산까지 경원선 따라 산문여행: 명사십리에 해당화 필 무렵』, (서울: 예음, 2020).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파주: (주)살림출판사, 1994).
염형민·류승환, 『북한의 도시개발 편람』,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2).

■ 논문

김범수, “원산개발과 남북 강원도 통합 관계성 연구”. 『한백통일경제연구』, 창간호, 2020년.
김일성, “강원도당전원회의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신년사(1980)”. 『김일성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 원, “북한의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5권 4호, 1990년.
박동민, “전후복구기 원산의 계획안과 재건, 1953-196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7권 제4호, 2021.
박희성,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군사연구』, 147권, 2019년.
손 환, “일제강점기 원산송도원의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6호, 2008년.
신정화, “북한의 개혁·개발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전우용, “원산에서의 식민지 수탈체제의 구축과 노동자계급의 성장”. 『역사와현실』, 제2권, 1989.

■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 기사

동아일보, 2018.5.19, “北, 스위스식 관광개발 시동...교통 인프라 개선이 관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519/90151620/1>.
로동신문, 1965.8.2, “원산은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고 있다”.
_____, 2018.1.1, “신년사”.
이찬우,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上)”. LIFEin, 2020.5.28.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96>.
이찬우, “세계를 향한 원산을 바라보다(中)”. LIFEin, 2020.6.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42>.
조선중앙통신, 2016.7.15, “갈마지구가 관광지로 꾸러질 전망”.
조선중앙통신, 2014.6.12, “조선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
통일뉴스, 2016.9.2., “고층 살림집 2000세대, 국제금융청사 등 건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994>.

‘강원도 정신’과 ‘원산의 기업’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사무국장)

북한 강원도는 고난의 땅 (?)

강원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 도(道)이다. 한국과 북한 모두에 강원도가 있다. 한국에서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과 낙후된 지역경제, 이 2가지 이미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강원도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4년 전인 2017년 초 북한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자. 북한 노동신문 2017년 1월 24일자에는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사설이 실렸다.

“강원도 정신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충정의 마음이다. 강원도 정신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강원도 정신은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목표를 내걸고 그 점령을 위해 모진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 뚫고 나가는 굴함 없는 공격 정신이다.”

‘강원도 정신’이라는 말은 2016년 12월 13일 김정은이 원산 군민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처음 등장했다. 이 용어는 발전소 건설에 기여한 인민들의 고강도 노동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 이후 북한 매체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강원도 정신’은 지명을 사용하여 이데올로기를 묘사하는 북한의 선전방식의 유형을 답습하고 있다. 대개 북한에서는 가장 빈곤한 지역이 체제 찬양의 주제로 쓰인다. 대표적으로 1998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자강도 강계의 ‘강계정신’이 그렇다.

강원도와 자강도는 산지가 많아 예로부터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두 곳 모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식량 사정이 심각했었다. 2020년 1월 29일자 노동신문은 “강원도는 우리 나라에서 발전조

건이 다른 도들에 비해 제일 불리한 지역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공업토대도 미약하며 기후와 토지조건도 좋지 못하다. 천연지대(前緣地帶) 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 기고자(基高者) 주(州)인 강원도는 지난 조국해방전쟁(基高者 주- 6.25동란) 시기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하다.”라며 북한 강원지역의 열악함을 이야기했다.

북한 ‘강원도 정신’의 핵심은 자력갱생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강원도가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언론에 ‘강원도 정신’의 성과로 언급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인 ‘원산군민발전소’
- 강원도내 철광석을 원료로 코크스를 쓰지 않고 철강재를 생산하게 된 ‘문천 강철공장’
- 수입자재의 국산화에 성공한 ‘원산가구공장’
- CNC 설비를 도입해서 타일의 품질을 대폭 높인 ‘안변요업공장’
- 김정은이 신발공업의 본보기라 말한 ‘원산구두공장’
- 연간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강원도 양묘장’
- 대규모 축산 전문기지인 ‘세포등판’

대부분 전력, 철강 같은 기간 산업과 산림복원, 축산기지 건설 등 기초적인 농업환경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섬유 공장, 시멘트 공장 등에서의 생산 혁신에 관한 사항들도 ‘강원도 정신’의 사례들로 언급이 된다. 이 밖에 리튬-젤 축전지, 인공 잔디, 열선 반사유리, 육조와 변기 등도 강원도 자체에서 생산하게 되었다고 북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고질적인 부분인 에너지난, 식량난, 생필품난을 나름의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강원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일반화하여 강조하고 있다. 수령의 유훈과 당 정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충정의 마음”과 “결사의 정신”, 자체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겠다는 “자력자강의 정신”,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로부터 나온다는 “과학기술 중시, 과학기술 선행” 등이 그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강원도 인민들이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인 강원도정신을 전체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원산군민발전소의 일꾼들이 켄기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이 말한 ‘강원도 정신’의 출발답게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된 구두가 전시되어있다. (참고: 조선신보)

북강원도 원산의 기업들

북한은 2019년 12월 북강원도의 원산에 ‘강원도 자력갱생 전시관’을 개관했다. 이 전시관에는 700여 종, 수천 점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북한 강원도 지역에서 추출한 원료와 자재로 만들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북한 강원도가

지역 경제 전반에서 성과를 내는 배경에는 전적으로 자력갱생 덕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북한의 다른 지역들도 ‘강원도 정신’을 본보기로 삼아 자력갱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강원도 자력갱생 전시관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기업소가 원산구두공장이다. 원산구두공장은 북한 언론에 자주 보도되며 유명세를 타는 곳이다.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두의 상표명인 ‘매봉산’은 북한 강원도 원산 인근의 산 이름으로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다. ‘매봉산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북한은 매봉산 전투에 의미를 두고 있다. 2021년 7월 22일 ‘조선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김정은이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며 “신발의 상표를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높은 기개와 승리를 상징하는 《매봉산》으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대개 신발을 포함한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름을 상표명으로 작명하는데 ‘매봉산’ 브랜드는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가 주입하고자 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했다.

북한이 원산을 대표하는 기업소로 육성하는 곳에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과 ‘갈마식료공장’이 있다. 201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송도원식료공장은 사탕, 과자, 빵, 음료 등 12대 카테고리 2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원은 360명 수준이라고 한다.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갖추었고 기능성 식품과 건강식품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지금까지 수십 종의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갈마식료공장은 명태, 낙지를 비롯하여 동해에서 나는 여러 가지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수산물가공품을 만들었는데, 냉동진공건조한 명태와 낙지, 문어, 명태식혜, 명태위젯, 아가미식혜, 명란젓, 창난젓, 낙지젓, 물고기껍질튀기 등 다양한 종류를 생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더 나아가 즉석명태고지국밥과 즉석명태국거리감, 송이버섯을 넣은 즉석섭조개국밥 등 식품 생산으로 생산품이 확장되었다.

북한언론의 보도를 보면 송도원식품종합식료공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내수용 식품, 갈마식료공장은 대외수출을 염두에 둔 수산물 가공품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내세우는 강원도식 자력갱생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또 다른 ‘강원도 정신’, 원산-금강산 관광지대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강원도 정신’의 핵심은 자력갱생을 통한 자급자족이지만 북한이 현재 강원도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본 유입과 그에 따른 수익의 창출이다. 한국과 북한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 경제협력 사업의 모델을 만들었다. 금강산 인근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 한국의 사업가 정주영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표적인 협력사업이지만 어찌 보면 한국의 강원도와 북한 강원도 사이의 접경지대에서 벌어진 남북 강원도간의 협력 사업이기도 했다.

금강산 사업을 통해 관광레저사업을 경험한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원산을 기점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고 원산비행장과 송도원 야영소를 현대화했다. 관광산업은 자연경관이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투자로 외화벌이가 가능하고,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여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부분 면제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북한은 관광산업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 등의 북한경제 회생 전략과 경제강성대국 건설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를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한 이후, 국내외에서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성 산하에 조선원산지구개발총회사를 설치하는 한편, 투자 개발 시설에 대한 기대 수익률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외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원산 송도원호텔과 해안호텔 건설의 경우 16.3%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IRR)과 13%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원산은 인구 약 35만 명, 면적 320km²의 항구도시이다. 원산은 조선말기인 19세기 말 외부에 개항했고 20세기 초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한반도 동북부의 주요 도시로 성장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총 개발면적 440km²로, 북한은 원산과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금강산, 통천, 석왕사의 여섯 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발 목표는 자연중시형 관광지구, 특색 있는 종합관광지구, 경쟁력 있는 4계절 관광지구, 국내 및 지역 간 역사·경제·문화교류를 위한 국제관광지구의 네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원산시는 다양한 휴양 문화시설과 생태환경이 조화된 국제관광지구로 개발하고, 금강산지구·통천지구·석왕



북한은 201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를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한 이후, 국내외에서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사지구는 자연과 역사 유적 관광지, 휴양 및 치료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대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 한국의 서울과 부산,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40여개의 도시와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어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관광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에는 2018년 4월까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 조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대북제재로 인한 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시설 준공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과거의 영광에서 미래를 그려보자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 인천 등 세 항구가 차례로 개항하였다. 개항 후 세 도시는 각각의 특성을 유지한 채 근대도시로 발전해 갔고, 원산은 러시아 및 일본과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동해안의 상업 중심도시가 되었다.

함경도 남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원산은 한반도 동북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함흥평야의 곡물과 강원도의 광물이 모두 모이는 곳이었으며, 자연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항만으로서 풍부한 수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 원산의 지리적 이점은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남북의 분단과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반도 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미래 원산에 대한 기대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1. 기독교 전래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1) 게일(J. S. Gail)과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

원산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이나 원래 함경도에 속하였던 도시로서 함경도지방의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 북장로교의 함경도 선교 본부가 위치했다. 전택부는 원산에 인접한 문천 출신으로 그의 대표작 <<토박이 신앙산맥>> 1부에서 원산지역의 개신교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1891년 5월 9일 게일(J. S. Gail)과 마펫(S. A. Moffett)선교사가 원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1891년 2월 27일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 의주, 만주, 장진, 함흥을 거쳐 원산에 다다른 것이다. 여행을 마친 후 게일은 헤론(J. W. Heron) 선교사의 미망인 김슨(Gale. Gibson Heron, 1860~1908)선교사와 결혼을 한 후, 1892년 7월 온 가족이 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원산으로 이주한다. 집은 인천항을 통해 부치고 가족은 육로로 이동했다. 사망한 존 헤론선교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과 김슨 선교사의 모친, 게일부부 총 다섯 명이 원산에 새집을 짓고 정착한다. 원산은 부산에 이어 1880년 조선에서 두 번째로 개항되었는데 게일 부부가 원산에 정착할 당시 원산의 인구는 3천 호에 이르렀으며 원산에는 세관 사무를 보는 영국인 2인을 비롯한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있었다. 당시 게일은 송도원과 시내 중심의 중간에 있는 봉수대에 집을 마련했는데 그의 집은 원산의 '예수집'이라 불렸다.¹⁾ 이곳은 아마도 현재 주소로 봉수동 어디 즈음일 것이다. 이후 이 교회는 1899년 상리(현재의 상동)의 상평창(常平倉 곡식을 보관하는 나라의 창고) 앞으로 이



제일스 게일의 환갑 때 조선전통 옷을 입고 교회신자들과 함께 한 축하연회 (사진출처: 문화재청)

1)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서울: 홍성사, 2015)



미 감리회 선교사들(1903), 원편으로부터 앞줄, W.B.맥길, W.A.노블, D.H.무어, W.C.스웨어러, E.M.케이블, S.A.백, 뒷줄, J.Z.무어, D.A.벅커, C.크리켓트, H.존스, C.D.모리스, A.L.벅커, R.A.사프. (출처: 씨포털)

전하여 창전교회로 불리었고 1917년 광석동(현재 영화관 자리로 추정)으로 이전하며 광석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²⁾ 광석동교회는 1927년 9월 9일 제 16회장로교 총회를 개최할 규모로 성장한

다. 게일이 원산에 정착한 이후 1892년 게일의 토론토대학 후배인 하디(R. A. Hardie), 1893년에는 감리교의 맥길(W. McGill), 1894년에는 미국 장로교의 스왈른 (W. L. Swallen)이 원산에 정착한다.³⁾ 게일과 하디는 모두 토론토대학 YMCA소속으로 파송되었으나 게일은 1892년 미국 북장로교회, 하디는 1898년 남감리교회로 이명하였다. 게일과 스왈른은 원산을 중심으로 함경도 곳곳으로 순회전도를 하며 차을경, 모학수, 고찬익, 전계은 등을 전도인으로 양성하였다. 차을경은 1896년을 기점으로 함흥, 영흥, 정평, 흥원, 북천, 단천, 갑산 등지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다. 원산의 교회는 성장하여 1896년에는 세례교인 34명, 학습교인 24명, 일반교인 80명으로 증가하였고, 함경남도 주요 도시들에 신자들이 생겨났다.⁴⁾

1892년 6월 장로교와 감리교 간 있었던 선교구역 분할협정에 이어 장로교 내부에서도 선교구역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1898년 연합선교사공의회가 함경도 지역을 캐나다장로회의 선교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를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에게 양도하고 공식적으로 원산을 떠난다. 게일은 캐나다인이었으나 북장로선교회 소속이었으므로 이 때 함경도를 떠나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고 스왈른은 평양으로 이주했다. 이들의 빈자리를 푸우트(W. R. Foote, 부두일), 그리이슨(R. Grierson, 구례선), 맥레이(D. M. McRae, 마구례), 롭(A. F. Robb, 업아력) 목사가 메우게 된다. 선교구역 협정 시기 함경남도에는 14곳의 예배처소가 있었는데 원산의 사역을 이어받은 캐나다장로회는 그리이슨 선교사 등의 노력으로 함경도 동부

연안을 따라 1901년에는 성진, 1904년에는 함흥에도 선교부를 개설하였으며 간도지역으로 선교영역을 확장한다.

1912년 장로회 총회가 조직됨과 동시에 총회 산하 7개의 노회가 설립되었는데 함경노회도 이때 설립되었다. 함경노회는 1912년 1월 29일 원산 상리 상동교회당에서 창립되어 함경도 전지역과 북간도, 블라디보스톡의 전교회를 관할하게 된다. 함경노회는 교세를 확장하여 1917년 함북노회와 함남노회로 분리되고 다시 간도노회(1921), 시베리아노회(1922), 함중노회(1925)가 분립되어 나간다. 1927년 당시 캐나다장로회의 선교부는 총 5개였는데 그 중 3개는 함경도 연안(원산, 함흥, 성진)에, 나머지 2개 지부는 북간도(현재 중국의 연변지방), 혹은 북간도와 조선의 국경(용정, 회령)에 위치한다.⁵⁾ 캐나다장로교의 간도선교의 결과 북간도에는 명동초과 대성중학교로 상징되는 기독교지성인 사회가 형성되었고, 캐나다 장로교와 북간도출신 성도들의 인연은 해방 후 북간도에서 월남한 인사들의 한국신학대학 건립과 민주화운동 시기의 협력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 감리교의 원산 개척자들 – 맥길(W. McGill)과 하디(R. A. Hardie, 하리영)

조선선교 초기 미감리회는 개항지인 제물포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자연스레 동해의 개항지 원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평양과 함께 원산이 한반도 북쪽의 거점으로 선정되었다. 미감리회 소속 맥길 선교사는 의료선교사로서 1893년 3월 원산에 정착하였다. 1896년 맥길이 선교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 원산에는 정식 교인과 입교 희망자를 합한 수가 219명에 이르고 있었다. 그는 원산거주 외국인들을 치료하고 얻은 수입으로 원산에 예배처소를 마련한다.⁶⁾ 미감리회 선교부가 의료선교사를 개척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북쪽지역에 의사가 먼저 들어가 시약소와 병원을 통해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감리회 선교부는 이미 조선 선교 초기부터 서울에서 병원, 학교, 교회를 팀으로 하는 삼각선교를 추진하여 효과를 보았고 이를 평양과 원산에도 적용하고자 했다.⁷⁾ 맥길이 원산으로 이주할 시 인쇄소와 출판사를 경영하던 올링거 선교사도 함께

2) “원산 광석동교회”, 유관지박사의 북한 옛교회들의 이야기, <http://21tv.org/bbs/zboard.php?id=column17&page=1>(검색일: 2023, 09, 08)

3)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4)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1992) pp. 108-110.

5)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 p. 106.

6)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97.

7)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회 역사』(서울: KMC, 2017), pp. 6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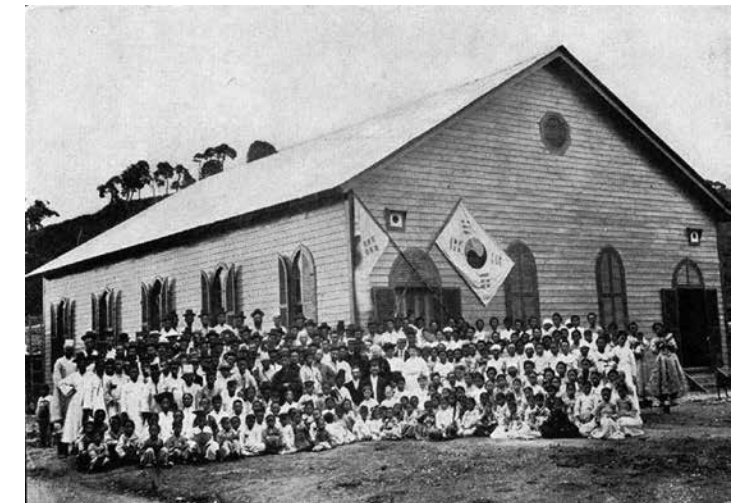
원산으로 이주하여 맥길이 차린 시약소 옆에 서점을 차리고 문서선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올링거 선교사는 조선에서 두 아이를 병으로 잃고 아내도 선교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아픔을 겪으며 1893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한다.⁸⁾ 그밖에도 선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복음을 듣는 조건으로 집과 음식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이 있었고 복음을 듣겠다고 접근하여 돈과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다수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팔라고 준 책을 가져가 집에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⁹⁾

맥길은 의료선교사이면서도 복음전파사역에 열심을 냈으며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홀로 하는 사역에 익숙한 선교사였다. 그는 일 년 중 한 달에서 세 달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사역을 지속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북감리회에 소속된 목회자선교사의 충원을 원했으나 목회자선교사는 충원되지 않았고 결국 북감리회는 일손이 모자란 관계로 원산에서의 철수를 고려한다. 이는 현실화되어 1901년 미국 남-북 감리교간 선교지 조정 시 북감리회는 원산지역을 남감리회에 넘기게 되고 맥길도 이 때 원산을 떠난다.¹⁰⁾ 1901년 당시 맥길의 선교보고에 의하면 원산에는 주일예배장소 세 곳, 6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여학교, 14명의 세례교인이 있는 교회 한 곳이 있었다.

이때 남감리회가 북감리회 사역을 인수받는 일에 주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교사가 하디(R. A. Hardie, 하리영)이다. 그는 캐나다출신으로 1890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캐나다대학 기독교청년회의 의료선교사로 같은 해 9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고 1892년 원산에 정착했다. 하디는 본래 독립선교사 신분으로 원산 정착 초기에는 주로 의료사역에 매진했으며 원산정착 3년 후 남감리회 선교부로 적을 옮긴다. 김화, 철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자 선교지역을 원산까지 넓힐 계획을 세운 남감리회는 1900년 9월 월슨 감독이 내한하여 주제한 선교연회를 통해 원산에 선교부(mission station)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하디에게 맡겼다. 당시 남감리회는 서울과 개성에 선교부가 있었으며 원산선교부는 조선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선교부이다. 선교부개설의 책임을 맡은 하디는 선교연회 직후 중국을 방문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12월 원산으로 돌아온다. 선교부의 설립으로 인해 사역에 활기를 띠게 된 남감리회는 1901년 로스(J. B. Ross)선교사를 원산에 파송하

였고 이후로 하디는 의료선교를 넘어 복음전파사역에 전념한다. 하디가 복음전도에 전념하기 시작하였으나 선교사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01년 하디가 목양하는 성도가 살해되었는데 다른 교인들이 이 살인에 대해 보복을 모의하다 체포를 당했다. 교인들은 하디에게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디는 이 일에 끼어드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하디와 조선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사역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¹¹⁾

1903년 8월 말 휴가를 얻어 원산에 온 중국선교사 화이트(M.C. White)의 방문을 계기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선교사들의 기도모임이 열렸다. 원산주재 남감리회 여성선교사인 캐롤(Arrena Carroll)과 노울즈(Mary H. Knowles)가 함께 사는 집을 모임장소로 제공하여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모임을 가졌다. 이 기도모임에는 총 7명의 선교사가 참여했는데, 그 중 네 명은 남감리회 선교사였다. 이 기도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인도하던 하디는 자신안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았고,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성령충만에 대한 실질적 고백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충만을 받는다. 하디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다른 선교사들과 나눈 후 원산교회의 회중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때는 스칸디나비아 선교회(Scandinavian Missionary Alliance)의 대표였던 프레드릭 프란손(Fredrik Franson) 목사의 원산방문 집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하디는 이 집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일성경공부를 진행했다. 모임중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을 하고, 얼마 후 다른 청년이 주일예배가 마치던 무렵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생기는 등 회개와 자복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온 교회로 확산되었고 성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 이후 하디는 지경터, 개성, 서울 등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였고 그가 인도하는 집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와 부흥으로 이어진다.



원산대부흥 당시 하디가 사역하던 원산의 남산동에 위치한 감리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고 촬영한 기념사진

8)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회 역사』 p. 61.

9) W. B. Scranton's Report,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4를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1997) p. 382. 에서 재인용.

10) Charles D. Stokes, 장지철, 김흥수 역, 『미국 감리교회의 한국선교 역사 1885-193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p. 137.

11) 김진형, 『초기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pp. 388, 389.

3) 여성사역의 발전

원산은 한국교회 전교단 전지역을 통틀어 여성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1913년 12월 20일 원산의 감리교에 속한 몇몇 전도부인과 여성도들은 여선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모임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하여 72원을 모아 전도인을 세우고 원산지방 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후로 이런 형태의 여선교회는 춘천, 개성, 서울로 확장한다. 원산의 여선교회 전통은 이어져 1918년에는 아프리카에도 선교헌금을 보낸다. 같은 해 6월에는 원산 보혜여자성경학원에서 전도부인대회를 열었는데, 여성 대표들이 원산지역 각 교회의 주일오전예배를 통해 보고회를 인도했다.¹²⁾ 한국인 여성들이 주일오전예배에서 남성들에게 강연을 하고 남성들이 감명을 받았던 이 대회는 한국교회의 여성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는 대회였다. 이후로 일제말 일제의 핍박으로 각 교단과 기관들이 폐쇄되던 시기까지 원산지역의 여선교부는 조선을 대표하는 여선교부의 규모와 지위를 유지한다. 1903년 노울스(Mary H. Knowles), 하운셀(Josephine Hounshell) 등의 여성선교사들에 의해 여자기숙학교가 시작되었고, 이 학교는 1916년 부녀자들을 위한 실업학교로, 1926년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원산 루씨여학교로 발전하여 해방시기까지 이어진다. 또한 1907년 연회 참관차 내한했던 남감리회 해외선교회 총무 앨리스 콕 부인이 건축비를 지원하여 설립된 원산 성경학원은 1926년 종합여성 선교센터 보혜여자관을 지으면서 보혜성경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4) 감리교의 부흥과 핍박

원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이미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므로 남감리회 선교부는 원산을 거점으로 남부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간다.¹³⁾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강원도지역에서 큰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1931년 감리교의 통계를 보면 감리교 총 교인수 57,974명중 원주(3,076), 춘천(3,518), 원산(2,927), 철원(2,511), 강릉(1,659)지부가 조선 전체 감리교인의 23.7%를 차지하게 된다.¹⁴⁾

12) 윤춘병, 『동부연회사』 (원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1996) p. 156.

13)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회 역사』 pp. 98, 99.

14) 윤춘병, 『동부연회사』 p. 235.

일제강점기 말 일제의 기독교탄압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원산의 감리교도 1930년대 51개 교회에 달하던 것이 1940년 12개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정춘수 감독으로 대표되는 친일지도부의 정책으로 인해 1944년 통폐합되어 원산중앙교회와 관교리교회 두 개의 교회만 남게 되었다. 이 시기 원산 창전교회의 서기훈 목사는 사상범 예비검속령에 의하여 1940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하였고 원산 고성구역을 담임하던 이진구 목사는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설교내용과 일본천황을 신이 아닌 사람으로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1941년부터 1943년 5월 7일까지 2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른다. 원산회양읍교회의 권원호 전도사는 1904년생으로 1941년 목사안수를 앞둔 젊은 목회자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압박이 한창이던 1940년 9월부터 ‘예수재림’, ‘신사참배문제’ 등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1941년 중반 조사를 명목으로 담배를 피우며 예배시간에 교회에 들이닥친 일제 형사들을 향하여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고 내쫓았다. 얼마 후 1941년 8월 22일 그는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진 고문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몸이 쇠약해져 1944년 4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교하였다.

5) 말콤 펜윅(M. C. Fenwick, 마위익, 1963-1935)과 대한기독교회

펜윅은 조선에 파송된 헤론(J. W. Heron)의 친구였다. 헤론의 부인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펜윅에게 전해졌고 이를 계기로 조선선교를 결심하여 1889년 조선에 입국한다. 펜윅은 1889년-1893년 1기 조선체류기 중 1891년 가을부터 1893년 귀국하기까지 1년 반 이상을 원산에 머물렀다. 이 기간동안 그는 품종개량, 대단위농업의 가능성 등 조선의 농업에 대해 연구하였고 1892년에는 요한복음을 조선어와 한문으로 병행하여 발행하였다.¹⁵⁾ 펜윅은 조선의 문화적응과 언어학습을 마친 1893년 캐나다로 돌아가 목사안수를 받고 조선순회선교단(The Corea Itinerant Mission)을 조직하여 1896년 이 단체의 책임자로 한국에 돌아와 원산에 선교본부를 두고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그가 1899년에 14곡을 수록하여 첫 발행한 찬송집은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우리말 찬송가 『복음찬미』로 발전한다. 이후 그는 원산에 돌아와서 보낸 5년간의 사역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인해 깊은 고뇌에 빠진다. 그러던 중 1901년에는 침례교 계

15)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pp. 32, 33.



강경침례교회 신명균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한 말콤펜윅 선교사(맨 좌측) (출처: Malcolm C. Fenwick, The Church of Christ in Korea. NY: George H. Doran Company, 1911)

통의 선교기관으로 1895년 설립되어 조선선교에 전념하던 엘라씽 기념선교회(The Ella Thing Memorial Mission)를 병합하였고¹⁶⁾ 이때부터 펜윅의 사역은 활기를 띠게 된다. 조선순회선교단의 사역은 원산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장을 거듭하여 1906년 ‘대한기독교회’라는 교단이 설립되었고 그는 초대감목에 오른다.¹⁷⁾ 대

한기독교회는 1919년 『신약전서』를 완역하였고 1920년 기준 적어도 250개 이상의 교회와 150명이 넘는 전임사역자를 거느린 교단으로 성장한다. ‘대한기독교회’는 이후 ‘동아기독교회’로 명칭을 바꾼다. 동아기독교 사역의 중심에는 펜윅과 원산총부가 있었다. 그는 1935년 12월 원산에서 소천하여 원산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2년 전 소천한 아내(Hinds)의 묘소 옆에 묻혔다. 동아기독교회는 1949년 미국 남침례교와 제휴를 시작으로 현재 침례교회(the Baptists)의 정체성을 가진 교단으로 이어진다.

6) 원산사건과 동아기독교 해체

펜윅의 대한기독교회는 1921년 조선총독부가 ‘대한’이라는 용어의 삭제를 강요하여 ‘동아기독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1년 말 교단 내외부적 갈등 속에 동아기독교가 사용하던 『신약전서』와 『복음찬미』가 총독부 경무국에 고발이 되는데 이때 복음찬미의 “대왕님 예수씨 보혈”, “주의 재림”등의 가사가 천황에 대한 모독과 국체명징에서 벗어나는 불온사상이라 고발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산총부에 보관된 신약전서와 복음찬미 6천 5백권을 비롯하여 모든 교단 서류가 압수당하여 소각되었다. 1942년 6월 10일에 원산 헌병대는 교단 총부를 불시 수색함과 동시에 이종근 감목을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종근 감목은 조사를 받으며 여섯 개의 심문에 답해야 했다. 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수재림 시는 그 지위(地位)가 어떠한가?

답: 만왕의 왕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등국(登國)하신다.

☞ 천년왕국을 건설되면 일본도 그 통치하에 들어가는가?

답: 그렇다.

☞ 일본 천황폐하(天皇陛下)도 불신(不信)시는 멸망 받는가?

답: 성경에 그렇게 명기(明記)되어 있다.

☞ 그때는 일본도 망하고 천황도 예수 통치하에 굴복하게 되는가?

답: 전 세계가 통일되는 동시에 예수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 국체명징(國體明徵)에 위반이면 불경죄에 범하는 것을 모르는가?

답: 신앙양심에서 답(答)하는 바다.

☞ 단체대표인 감목이 그렇게 답변할 때는 간부(幹部)는 물론이고 전 교단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신조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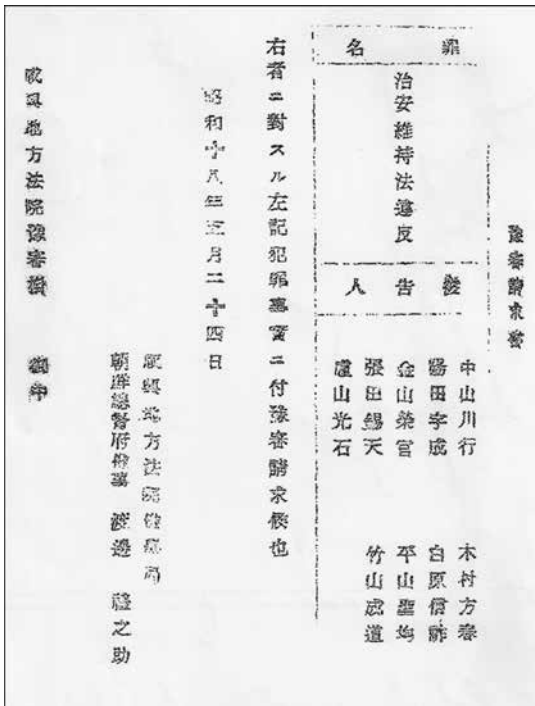
답: 동일한 성경으로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합치되는 이론(理論)일 것이다.¹⁸⁾

일제는 심문 다음날인 6월 11일 전치규와 김영관을 구속하고 원산교회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6월 10일과 11일에 체포된 이들 동아기독교 지도자 3인은 삼개월 동안 구속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취조를 받았다. 또한 동아기독교는 불순단체로 규정되었고 9월 4일을 기점으로 다른 동아기독교회 지도자들이 구속되기 시작한다. 전국에서 체포된 지도자들은 모두 원산으로 압송되었는데 이들은 감목(총회장), 목사, 감로(집사), 교사를 망라하여 구속된 인원이 총 32명 이었다. 이때 수감되었던 김용해는 수감생활을 ‘고문과 학대의 연속’으로 묘사한다. 실제로 예산출신 이덕여 감노는 병환으로 여러 달을 고생했고, 울진의 전병무 감노, 전북 용안의 이상필 감노는 수염이 길다는 이유로 수염을 뽑고, 수염에 불을 붙이는 등의 치욕을 당하였다. 다행인 것은 1942년의 겨울은 다행히 날씨가 온화했고 그해 과실과 생선의 풍년으로 원산 교인들이 간식

16) 오지원, 『초기 한국침례교 역사』 (서울: 요단출판사, 2019) pp. 186, 187.

17)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p. 99.

18) 이경희, “한국침례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원산사건과 미남침례회 제휴를 중심으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 159.



일제 강점기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동아기독교 목사들을 함흥지방법원에 기소한 범죄 사실을 기록부인 예심청구서 (출처: 침례신문)

을 넣어준 것, 일과 중 잠시 햇빛을 쬌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이었다.¹⁹⁾ 이들중 23인은 1943년 5월 15일에 기소유예로 석방되었고 8인은 1944년에 형을 채우고 석방된다. 이 중 3대 감목을 지낸 전치규 목사는 1944년 2월 13일 옥중순교하여 원산 묘지에 안장되었다. 결국 1944년 5월 10일 일제에 의해 동아기독교에 대한 해체령이 내려졌다. 동아기독교 교단 해체의 이유는 “동아기독교가 신사참배와 황궁요배를 거부함으로써 일본국과 일본천황을 모독했으며 교단의 교규내용이 일본국의 국체명징에 위배되는 불온사상을 지녔다”는 죄목에 따른 것이었다.²⁰⁾ 동아기독교는 한국에서 일제의 탄압에 끝까지 저항한 교단이었고, 원산사건은 동아기독교의 이러한 저항이 빚어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지도자들의 저항 - 전임 감목의 순교 - 교단 폐쇄로 이어진 비극이었으나, 체포된 32인의 지도

자 중 한 명도 굴복하거나 변절하지 않은 상징적 사건으로 해방 후 동아기독교 재건과 한국침례교 건설에 있어 권위와 동력을 제공한다.

2. 해방이후 6.25전쟁까지

1) 동아기독교회

해방 당시 동아기독교회는 핍박으로 교단이 무너지고 지도부가 와해된 지 4년 차에 이른 상황이었다. 특히 공산당이 점령한 북한지역에서는 더욱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원산사건 당시 일제의 압박으로 교단 재산 전액을 국방헌금으로 기부하여 교단 재정은 전무하였고 원산총부의 경제적 후원자였던 안대벽은 남한으로 월남하였다. 이종근 감목은 만주로 이주하고 원산총부를 지키던 김영관 목사 역시 1946년 10월 경 나진으로 이주한다. 북한의 동아기독교 분포는 원산총부일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해방 후 원산총부는 동아기독교의 총부로 재건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북분단으로 남한과의 왕래가 어려워진 데다가 지역적 특성으로 북한의 다른 지역과도 교류가 어려워진 원산총부는 더는 재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단신으로 월남의 길을 택하여 결국 원산총부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38선 이북의 동아기독교 지도자들은 함경북도지역으로 옮겨가서 1947년 초 나진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38선 이북 총회를 개최하며 교단 재건에 착수한다. 1948년 역시 나진에서 제2회 총회를 여는 등 교회재건에 노력했으나 공산정권의 핍박으로 총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²¹⁾

2) 감리교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가 조직된 후 한반도 북부의 감리교선교사업은 해주, 평양, 영변은 미국북감리회 선교사들이, 개성, 철원, 원산은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일제말 원산은 원래 동부연회에 속했으나 해방 후 감리교의 연회 재건(북흥)시 함께 동부연회에 속했던 통천과 함께 서부연회로 재조정되었다. 서부연회의 책임자로 추대된 이윤영 목사는 조만식의 조선민주

덕원, 문천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재산목록” 조선감리회 9회(1938년) 연회록 부록,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195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제27회)』, pp. 227, 228.),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안희열, “말콤 펜워의 북방선교 2”, 침례신문 (<http://www.baptistnews.co.kr/news/article.html?no=12666>))

19) 이경희, “한국침례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원산사건과 미남침례회 제휴를 중심으로,” pp. 165-167.

20)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p. 320.

21)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pp. 338-342.



원산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재산목록” 조선감리회 9회(1938년) 연회록 부록,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195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제27회)』, pp. 227, 228.),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 안희열, “말콤 편위의 북방선교 2”, 침례신문 (<http://www.baptistnews.co.kr/news/article.html?no=12666>),



조희령 목사, 6.25 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어 고문을 받았고 원산형무소 뒷산에서 총살되어 66세에 순교하였다.

당 부당수로 활동하던 중 1947년 월남하고 그의 뒤를 이어 서부연회장을 맡은 송정근목사도 1947년 5월 기독교자유당 창당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다.²²⁾

3. 6.25 전쟁으로부터 현재까지

1) 6.25 전쟁 중 원산의 순교자들

조희령목사(1885~1950, 장로교)는 함흥출신으로 토론토대학교와 낙스대학에서 수학하고 원산 마르다 여자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했다. 그는 해방 후 원산 시 부시장으로 추대되기도 한 원산지역의 지식인이었다. 조희령 목사는 원산 남부교회(장로교) 목사로 시무하던 중 6. 25전쟁이 발발하여 1950년 10월 9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원산형무소에서 총살되었다.

최상은 목사(1904~1950, 장로교)는 황해도 평산의 목회자가정 출신으로 1938년 함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원산지역의 순회목사, 영흥교회(장로교) 담임목사를 맡아 사역하였다. 해방 후 공산당의 박해로 월남하여 서울 응암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6.25가 발발하였고 1950년 8월 11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순교하였다.²³⁾

한사연목사(감리교)는 1917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로 금성, 식녕, 양구, 인제

22) 이덕주 외, 『한국 감리교회 역사』 pp. 349, 350.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 pp. 247, 248.

등 강원도지역에서 목회한 원로 목회자였다. 6.25 발발 시 그는 71세의 나이로 금성에서 목회중이었다. 그가 목회를 하던 금성지역은 38선에 연하여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월남이 가능하였다. 공산당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며 주변 젊은 목사들이 월남을 하고 그에게도 월남의 권유가 있었으나 그는 “철원지방 감리사로서 양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금성에 남았다. 1950년 3월 철원에서 반동사건 검속으로 감리교인들이 구속되었는데 한목사도 이에 관여하여 검거되었다. 6.25 발발 후 그는 원산으로 끌려가 처형당했다.²⁴⁾

1913년생인 강승남 목사(감리교)는 원래 성결교 목사였으나 1944년 일제에 의해 성결교가 해체된 이후 감리교회로 이명하여 1948년 원산 석왕사(오산리)교회를 담임하였다. 그는 전쟁 중 교회청년이 사망하여 장례에 참여하려 가던 중 면장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면장이 집을 비운 사이 그곳을 지나던 인민군 패잔병 무리가 면장의 집에 들렀다. “당신은 누구냐?”는 인민군의 질문에 “나는 목사요”라고 대답하였고 인민군들은 그를 마당에서 총살하고 도주하였다.²⁵⁾ 그 밖에도 원산 신고산교회(감리교)를 담임하던 박덕수 전도사, 원산원덕교회(감리교)를 담임하던 이수만 목사가 공산군에 의하여 피랍된 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²⁶⁾

2) 1958년 원산시당위원회 해체사건

1958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에 의해 주도된 ‘중앙당 집단지도’ 성분검토 시 원산시당 간부들 대다수가 반혁명 사건에 관련되어 시당위원회가 해체되는 사건이 있었다. 원산지역에서 한 여공이 소지하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여공은 천주교 신자로 알려졌는데, 원산지역은 기독교와 더불어 천주교 역시 왕성한 지역이었다. ‘덕원수도원’으로 알려진 ‘덕원자치수도원구’는 전 세계에 11개밖에 없던 자치수도원구 중 하나였으며 6.25시기 가장 많은 천주교 순교자가 나온 지역이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원산지역의 종교에 대한 대대적 검열이 이루어졌다. 당시 1개 시-군에대한 집중지도에 보통 3-6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원산시에 대한 검열에는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 적발된 당간부들 중에는 원산시 당간부의 가족과 친척들이 포함

24) 윤춘병, 『동부연회사』 p. 52.

25) 몇몇 저작들에는 원산의 순교자로 강승남 목사와 김축수 목사 두명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두사람은 동일인물로서 강승남 목사의 호가 축수(丑洙)이다.

26) 윤춘병, 『동부연회사』 p. 385.

되었다. 시당 간부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진 사실과 함께 원산지방의 한 기독교인은 원산시당 기독교 간부로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 친척을 따라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전도를 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진다.²⁷⁾

3) 조그련의 원산교회 설립 검토

1980년대말 냉전해체의 분위기 속에 남한에서 열린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동서진영 모두가 참여하는 상징적 국제 행사가 되었다. 북한은 이 때 1989년 평양학생축전을 개최했는데 이는 북한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또한 세계교회와 교류를 시도하며 봉수교회(1988년)와 칠골교회(1992년)를 건립한다. 이 두 교회를 시작으로 북한정권이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원산이었다. 소문만 무성하던 원산의 교회에 대해 영국주재 북한공사였던 태영호의원의 증언이 있었다. 태영호의원은 2017년 12월 18일 한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북한 당국은 원산, 강계 등 지방 도시에 종교시설을 짓는 것도 검토했지만 지방에 교회나 성당을 지었다가 공산정권의 오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신자들이 ‘당에서 그렇게 없애놓고 이제 와서 교회를 짓다니,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굳힐까 걱정해 더 이상 짓지 않았다.”²⁸⁾ 결국 봉수교회-칠골교회 이후로 북한의 교회건립은 중지되었고 원산, 강계 등에 교회설립 계획 또한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원산은 조선의 두 번째 개항도시로 서구와 일본의 문물과 인원이 비교적 일찍부터 들어온 도시이다. 특히 미국북장로교와 캐나다장로교, 미국감리회와 남감리회, 동아기독교(침례교의 전신)가 조선에서의 사역을 시작한 초기 조선선교의 거점도시이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지 분할 시에도 서울, 평양, 원산만은 분할에서 제외되어 1907년 협정을 맺고 두 교단이 함께 선교를 이어나간다. 게일과 스왈른으로 대표되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의 열매로 개척되어 성장한 광석동 교회는 1927년 9월 9일 제 16회 장로회 총회를 개최할 규모로

성장한다. 맥길과 하디로 대표되는 감리교 의료선교사들은 원산사람들의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치유하며 대부흥을 이루어 냈고, 이 부흥은 평양과 전 조선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병으로 잃고 원산을 떠난 올링거와 같은 선교사들도 있었다. 원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캐나다 장로교는 북쪽으로 향하여 함흥, 성진, 회령, 용정으로 이어졌고, 감리교는 남쪽으로 향하여 통천, 김화, 춘천으로 퍼져나갔다.

원산의 위대한 개척자 말콤 펜윅은 원산을 총부로 두고 독자적인 선교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교단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원산에 묻혔다. 펜윅의 후예인 동아기독교의 목사들은 일제말기 일제의 탄압을 받아 지도부 전체를 비롯한 핵심인물 32명이 구속되어 고초를 겪었으나 그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 중 3대 감목(총회장)을 지낸 전치규牧사는 1944년 2월 13일 옥중순교하여 원산에 묻혔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며 원산은 공산당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월남을 택한다. 그러나 감리교 한사연牧사는 “철원지방 감리사로서 양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금성에 남았다가 6.25 발발과 함께 원산으로 끌려가 처형을 당하였고, 한국 최초의 캐나다 유학파 목사이자 원산의 최고지식인이었던 조희렴牧사 역시 동료들과 정치권의 수많은 월남 권유를 “양떼를 남기고 떠날 수 없다”라는 말로 물리치고 원산에 남아 원산남부교회를 지키던 중 6.25 발발 후 원산형무소에 갇혔다 순교를 당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하나의 주도적 교단에 의해 선교가 이루어졌으나, 원산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각각 최고의 선교사들이 개척했고, 세 교단 모두 부흥과 핍박의 경험을 공유하는 흔치 않은 도시이다. 북-중 국경과 거리가 먼 지리적 특성 상 원산출신 탈북자가 매우 적고 6.25 이후 원산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사연, 조희렴을 비롯한 충성된 목자들이 남아서 지키고자 한 양떼들은 목자들의 충성을 보고 경험했을 것이고, 그 양떼들과 후손들이 원산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각 교단 최고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땅, 일제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목자들이 고난을 견뎌낸 땅, 충성된 목자들이 남아서 양떼를 돌보다 순교한 땅 원산을 기억하며 충성된 목자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양떼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

27) 김영국, 『북한 종교말살의 진상』 (서울: 백함출판사, 1979) pp. 119-122.

28) 유관지,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재구성한 북녘교회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p. 146.

신(新)복음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김병욱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북한학 박사)

1. 들어가며: 신(新)복음선교의 등장

아래 그림은 박찬욱 감독이 만든 지난 2022년 6월에 개봉된 <헤어질 결심>에서 나오는 장면이다. 미스터리 로맨스이기도 한 이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한이 영영 헤어질 결심을 현실로 옮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남북관계를 접었다. 3년이 지난 올해 들어 한국 정부는 통일부의 업무를 전격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강도 높은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金正은의 공개적인 대한민국 발언으로 인해 남북한의 특수관계가 사라지고 있

다. 분단국들에서 상대국에 비해 체제경쟁력이 약할 때 약소국이 꺼내드는 상투적 카드가 분단상황의 고착화인데 북한이 이를 닦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남북한 정권의 강 대 강 대결정책 속에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세계를 위협하는 핵을 보유한 국가이다. 김정일이 생전에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라고 한 말이 되새겨지는 오늘이다.¹⁾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은 핵 국가를 대상

1) 이를 반영한 듯, 1999년 1월 29일 발간된 북한의 『노동신문』은 1면에 “평양을 수호하는 성새로” 제

으로 한 활동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당국 차원의 통일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래로부터의 복음통일이며 그 선각자의 길이 신(新)복음선교²⁾라고 판단된다.

2. 다시금 등장하는 북한지역 교회재건을 위한 선교 준비

지난 2023년 2월 24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통일선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원탁회의 준비 2차 모임>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교회재건을 위해 한국교회가 선교전략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³⁾ 과거와 다른 차원의 복음선교전략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95년, 한국교회는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7개의 교단장과 총무, 13개 단체의 단체장과 총무들이 참여하였는데, 북한교회 재건을 목표로 한 단합의 계기였다. 당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대한 교파 간 무분별한 선교 경쟁이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교회는 통일 후 북한지역 선교에서만은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화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광복 전 북한지역에 위치하였던 3,000여 개의 교회를 재건하고자 했다.⁴⁾ 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정권 또한 안정세를 이어 나감에 따라 ‘북한교회재건운동’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통일선교위원회의 논의는 오늘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반영하여, 1990년대 추진된 북한지역 복음화 활동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 복음선교를 어느 지역에서부터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3. 복음선교의 시각에서 본 원산지역과 광석동 교회

역사 자료에서 보면, 원산지역은 한국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원산항 개항에 따른

목의 사설에서 평양이 없는 조선은 없으며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2) 이 글에서 신 복음선교는 북한의 핵개발과 이에 따른 남북한의 첨예한 대결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통일이 어려운 환경에서 북한주민의 종교의식, 한반도 통일에 적합한 아래로부터의 선교활동을 말한다.

3) “북한교회 재건논의, 시작이 반이다.” 『기독일보』, 2023년 3월 2일 자.

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북한교회재건백서』(1997), p. 4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북한교회재건백서』(1997), p. 44.

이 지역 지정학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한 이후, 강탈한 자원을 본국으로 운송하는데 가까운 한반도의 동해지역에 항구를 개척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1876년 부산항이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원산항이다. 1880년 개항 직후 원산지역에는 많은 일본인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02년 윤치호의 기록에 따르면, 원산에는 일본인들 외에 중국인들도 적지 않게 거주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개항한 이곳을 선교사들은 강원도와 함경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중국 간도지역 까지 선교의 발판으로 삼았다. 원산지역은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발단이 되었고 외국 선교사들의 영혼이 깃든 땅이기도 하다. 1903년 한반도 교회 역사에서는 원산지역을 중심으로 신앙 체험이 시작되었다.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전국적 확산을 통해 한국교회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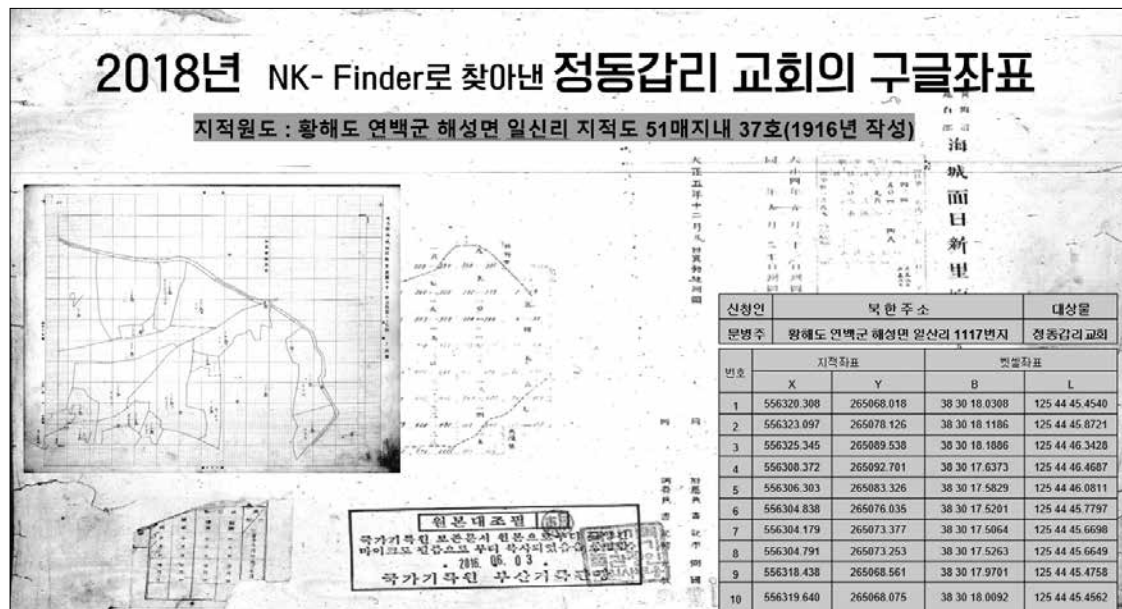
4. 길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복음선교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려고 할 것이다.

5.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원산지역 신 복음선교



5) 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1996), p. 106.



산청년회관, 해방유치원, 개선고등학교 등이 있어 엘리트들이 거주하고 있다. 해방동에는 원산수산물사업소나 원산항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 봉춘동에는 김일성·김정일 동상, 원산혁명사적지, 원산여관 등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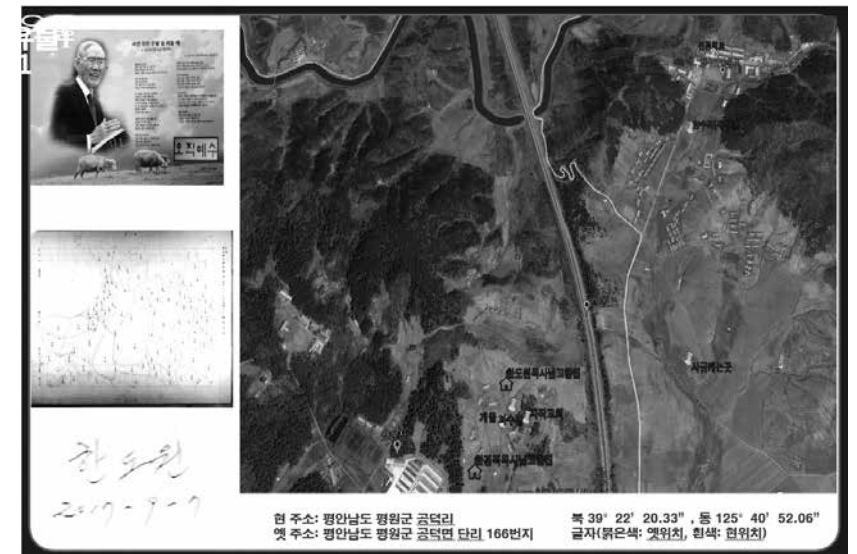
다음으로 광복 전 원산지역 교회나 역사 현장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기술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고 실향민들의 고향집 위치찾기, 종교유적지 찾기 등에 근 8년간 활용되어오고 있다. 원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 복음선교는 〈뿌리 찾기와 뿌리 잇기〉, 혹은 〈표식돌 세우기〉 등의 활동과 동반해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시 형성된 혈연, 지연, 학연의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성도들이 떠나온 고향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하는 것은 타 지역 출신 선교사의 역할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⁸⁾ 그간 한국 기독교계는 독실한 북한이탈주민 출신 성도들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 원산 시내 주민분포와 역사현장 찾기, 복음전달의 접촉점을 만드는 데서 북한 이탈주민 출신 크리스천 사회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김병욱·김영희, “북한사회의 수령교와 타종교권 선교에 따른 북한선교” 『탈북박사 부부가 본 북한: 딜레마와 몸부림』, p. 384.

광복 전 평양 대부흥을 가져온 원산지역이 오늘날 북한지역 신 복음 선교의 대부흥을 가져올 수 있게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 성도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북 시 삶에 따른 북한의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장점과 입국 후 학술 활동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북한 출신 연구자들이 타 종교권 선교에 관한 경험이 있는 남한 출신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지역 신 복음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6. 나오며: 신 복음선교 등장에 따른 도전의 과제

광복 전, 강원도를 포함하여 함경남북도와 중국의 간도 지방에까지 맨 먼저 복음을 전파한 교회들이 원산지역의 교회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광복 전 원산지역의 교회는 한국교회 성장의 자양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복음 통일이 등장한 오늘,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원산지역은 마식령스키장의 운영,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건설 등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과거와 달리 관광자원을 활용한 선교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전략적으로 원산지역 내지의 선교 추진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 복음선교의 등장과 더불어 이에 따른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원산지역에 선교거점을 설립하고 사역에 필요한 정보를 선교전략에 반영하는 등 남북한 출신들이 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복음전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김철성 교수 (목원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만일 누군가가 필자에게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북한 지역 중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함 없이 “원산”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흥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원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필자가 한국선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원산지역이 가지는 나름의 의미와 원산대부흥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글을 작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서 주로 선교사들이 언급한 내용과 필자가 기존에 작성한 학술논문(“원산부흥, 일반부흥인가 대부흥인가,”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4집)을 기반으로 기술하였다는 한계를 독자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이 글을 읽고 나서 원산대부흥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필자의 학술논문인 “원산부흥, 일반부흥인가 대부흥인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원산의 간추린 역사

과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개항장이 3개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부산, 원산, 인천이다. 물론 이보다 나중인 1899년에 군산 또한 개항장이 되기는 했지만, 앞서 언급한 부산, 원산, 인천은 외세(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한 측면이 강하고, 군산은 대한제국이 주체적으로 개항했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면 부산은 1876년에, 원산은 1880년에, 그리고 인천은 1883년에 개항장이 되었다. 다시 말해 남해안의 대표적인 개항장은 부산이었고, 서해안의 대표적인 개항장은 인천이었으며, 동해안의 대표적인 개항장은 바로 원산이었다.

원산(元山)이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말까지 주로 원산진(元山津)이라고 불리는 작은 포구였으며, 1890년대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원산보다는 진산(Gensan, Genza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이에 대



1910년대 원산항 모습(※출처 확인중)

해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은 그의 책(Korea: Fact and Fancy)에서 “한국 사람들은 원산(Wonsan), 일본 사람들은 진산(Gensan), 중국 사람들은 윤산(Yuensan)”이라고 각기 다르게 부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알렌은 원산이나 윤산보다는 진산이라고 명칭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금광으로 유명한 윤산(Woonsan, Unsan)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바로 이런 이유로 원산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Robert Alexander Hardie) 선교사의 편지에는 원산(Wonsan)이라는 용어보다는 진산(Gensan)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원산의 행정구역은 본래 함경남도였다가 해방 이후인 1946년에 강원도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원산은 북한의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에서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했던 하디 선교사의 주된 선교지역은 강원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행정구역상의 소속(함경남도)과는 별개로 1890년대 당시에 원산은 강원도 지역과 더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디가 1901년에 양양과 강릉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펼친 결과 양양감리교회와 강릉중앙감리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혹자는 하디가 1903년 원산대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열매가 없었는데” 회개한 이후에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데, 이는 하디의 사역을 오해한 것이다.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면 1903년 이전에 하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른 학술논문인 “하디의 회개, 부흥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선교신학』 제32집(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선교사들의 휴양지

한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휴양지 하면 떠오른 곳은 어디인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지리산에 있는 선교사 휴양촌(현재 유적지)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지리산에 휴양지를 조성한 것은 1925년의 일이고, 이보다 더 앞서서 선교사들이 휴양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원산이다. 원산에는 해변이 매우 아름다운 명사십리(明沙十里) 해수욕장이 있었고, 기후적으로 미국 동부와 유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한 풍토병으로 고통받았던 외국 선교사들에게 원산은 최적의 휴양지였다.

1890년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 제중원에서 잠시 의사로 활동하다가 가족과 함께 부산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했던 하디 선교사는 교단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독립선교사였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인적, 물적으로 든든하게 교단의 후원을 받는 미국 북장로회나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이 부산에 많이 오자, 그곳을 그들에게 맡기고 부산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부산을 떠나면서 다른 곳이 아닌 원산으로 가게 된 이유는 첫째, 부산보다 원산에 선교사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고, 둘째, 같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들(제임스 게일과 말콤 펜윅)이 원산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마지막으로, 원산이 자신의 고향인 캐나다 동부지역과 기후적으로 유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해외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원산에 별장을 지어서 그곳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몸과 마음에 쉼을 얻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일명 “김일성 별장”으로도 유명한 강원도 고성 의 해당 건물도 본래는 원산에 있었던 별장을 1937년에 일본이 강제 이주를 지시하여서, 감리회 선교사였던 셔우드 홀(Sherwood Hall) 부부가 1938년에 고성에 지은 별장을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 가족이 사용하면서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원산은 선교사들에게 쉼을 얻는 최고의 장소였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남감

리회 메리 화이트(Mary White) 여성 선교사가 원산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모임을 가졌는데, 바로 이 모임이 원산대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디는 당시 원산에 있던 선교사들의 이 기도 모임에 주강사로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세례를 체험하였고, 이것이 바로 원산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

4. 사과 과수원과 최용신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사과이다. 북한의 사과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서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여러 곳으로 남한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과 과수원에 농업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근원을 보통 앞에서 언급한 말콤 펜윅(Malcolm Fenwick)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펜윅은 본래 캐나다 장로교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후에 미국에 가서 침례교 신학을 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 다시 와서 선교활동을 이어가서 한국 침례회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특히 펜윅은 한국인들과 동일한 의식주 문화를 추구하고, 특히 복음의 토착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아울러 부족한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 소위 자비량 선교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펜윅이 한 영문잡지에 ‘원산에서 생산된 사과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출되고 있다’고 기고함에 따라서 펜윅이 우리나라 근대 사과 과수 원예농업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사과나무 묘목을 한국에 처음 들여와서 원산에서 과수 원예농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바로 하디 선교사이다.

하디는 캐나다 동부지역과 원산이 기후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1892년에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던 동생에게 사과나무 묘목을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성공하여 원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과 과수 원예농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하디 자신이 전적으로 사과 과수 원예농업에 전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원산에서 사과 과수원에 농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로 인해 “학농원”이라는 것이 원산에 만들어졌는데, 1930년대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최용신이 바로 원산(함경남도 덕원군 두남리) 출신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만하다. 다시 말해 하디와 펜윅 선교사의 영향 아래 원산지역에서 형성된 농촌계몽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그러한 풍토의 결과로 최용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원산 명사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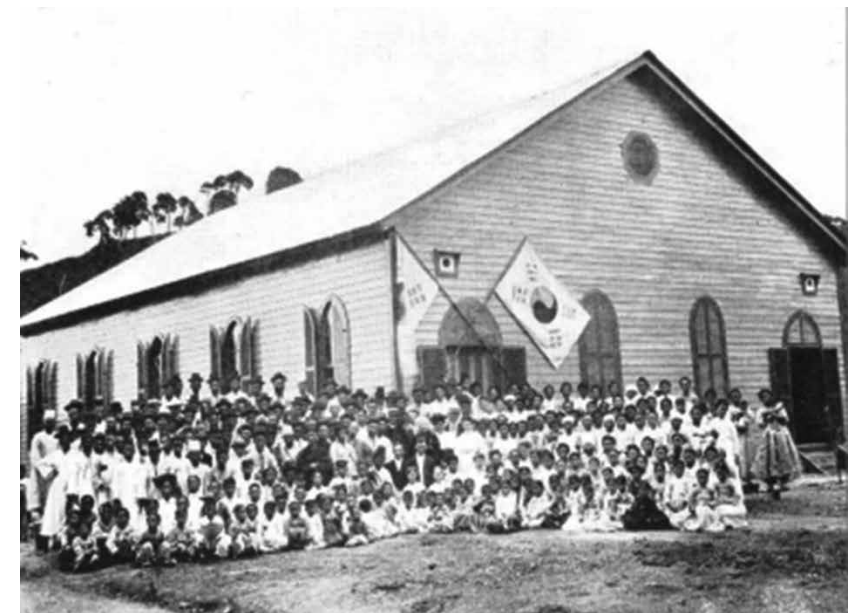
5. 원산대부흥

1903년 8월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다른 지역으로 뻗어갔다는 점에서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1903년 원산에서 활동하거나 원산에 잠시 방문한 총 7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도회 모임을 갖게 되었고, 하디는 그 모임의 주강사로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가지 필수요소들(three essentials to effectual prayer)”이라는 큰 제목을 위해, 요한복음 14:12-14, 15:7, 그리고 16:23-24를 본문으로 정하고,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abiding in Christ), 그리고 오순절 성령세례의 경험(an experience of Pentecost)”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디 자신이 우선 성령을 체험하였고, 기도회 모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동료 선교사들 또한 성령을 체험하였다. 그 후 이러한 성령의 체험은 선교사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국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원산을 넘어 강원도, 송도(개성), 서울, 평양, 인천, 목포, 함흥 등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대부흥의 역사는 하디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하디가 1904년 11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1년동안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저다인과 같은 하디의 동료 선교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원산대부흥은 하디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1905년 12월에 한국에 돌아온 후, 하디는 1906년 8월에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을 위한 성경공부(Bible Conference)를 인도했고, 이 집회의 목적은 선교사들이 보다 깊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평양주재 북장로교의 대표적 선교사 중 한 사람인 그레함 리(Rev. Graham Lee) 선교사는, “하디의 집회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열망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있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디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던 평양주재 장로교 선교사들 또한 자신들의 한국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도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관해 하디는 대부흥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어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남감리교 30주년 기념역사』(Southern Methodism in Korea: Thirtieth Anniversary)에서 서술하고 있다.

혹자는 1909년에 계획하고 1910년에 이루어진 “백만명구령운동”을 대부흥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백만명구령운동은 성령세례 혹은 성령체험을 의미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의 전도운동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운동”(movement)이다. 운동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의미한다. 운동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1919년에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이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바로 “3.1독립만세운동”이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펼친 것이 바로 백만명구령운동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백만명구령운동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하나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원산대부흥과는 차이가 있다.



원산 남동감리교회

6. 나가는 말

올해 2023년은 1903년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면서 필자는 120년 전 원산에서 시작되어 약 4년 정도 지속된 원산대부흥과 같은 사건이 한반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20세기 초 한반도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인 원산지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조웅규

조희렴 목사의 차남

정치학 교수

대한민국 15, 16대 국회의원

"저도 북한에서 왔습니다" 2023년 출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조희렴 목사는 내가 13살 때 순교하셨다. 성장이 그 어느 때 보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보호가 절실한 때였다. 조 목사는 예고도 유연도 없이 우리 어린 삼형제와 엄마를 이 험한 세상에 남기고 순교하셨다. 아버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낸 후 나는 아버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이제 조희렴 목사의 순교정신을 깊이 기리며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희렴 목사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 한다.

조희렴 목사를 한마디로 논한다면 그는 외유내강하며 품격이 높으신 분이다. 더 깊이 살펴보면 깊은 신앙으로 무장한 소신파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뜻을 관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다. 반면 현실은 현실로 직시하면서 뜻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일보 후퇴를 하는 지혜도 겸비한 분이다.

가장으로서 조희렴 목사는 신앙적으로 엄격하였지만 자식들에게는 항상 너그럽고 말수가 적은 온화한 아버지였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항상 가져오셨으며 우리 삼형제가 마당에서 뛰어놀면 함께 놀아주시던 친구 같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전 가정예배 시간에는 항상 우리 삼형제에게 신앙심, 정신교육 그리고 가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그는 물질이나 명예 또는 육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강인한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도록 항상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아버님은 사회적으로는 사익보다 공익을 위해 항시 무에서 유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다. 어떠한 난관도 신앙으로 극복하려 노력하신 분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신앙인으로 도전적

긍정적 삶을 위해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신 분이셨다.

순교자 조희렴 목사는 1885년 2월 2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한학자 집안의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학을 공부하며 동네에서는 장난이 심한 아이로 자랐다. 예로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교인들에게 장난을 쳐서 그들을 당혹케 하곤 했다. 어느날 그는 예전처럼 교회 앞에서 장난하다 쓰러진 후 캐나다 선교사의 인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선교사는 아버님에게 목회자의 길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우선 서울의 경신학원에 입학시켰다. 아버님은 1910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잠시 귀국해 경신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던 이승만 박사를 만난다. 두 분은 사제관계로 좋은 인연을 만들고 1912년 이 박사가 다시 도미 할 때 자신이 추진하던 주일학교 사업을 아버님에게 인계하였다. 이런 연유로 아버님은 1933년에는 조선주일학교 대회장이 되어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셨다. 조 목사는 1911년 경신학원 제6회 졸업생 9명 중 한 분이다. 2015년 10월 15일 경신 개교 130주년 기념식이 있어 가족을 대표해 내가 참석했다. 조 목사는 "그의 나라 사랑과 신앙생활이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기독교 학교인 경신학교의 명예를 높인 가치를 인정 받아..." 제1회 자랑스러운 경신인상을 받았다.

1914년 조희렴은 캐나다 장로교 한국 선교회의 여선교사 루이스 매컬리(1886-1945)의 도움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갔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 아버님은 일경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의 볼라디보스토크를 지나 해안을 따라 동북진했다. 그리고 눈과 얼음으로 덮인 북극해의 베링해협을 건너서 앨레스카를 거쳐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였다.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약 10,500km의 길고 힘든 육해로를 모험하며 동부의 토론토에 도착해 정착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는 캐나다의 달하우시대학교(Dalhousie Univ.)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토론토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도미하여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교육학과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류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시카고대학 시절에 아버님은 한국유학생회와 국제유학생회 회장으로 활약하며 유학생들의 휴식공간과 복지를 위해 록펠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내에 'International House'를 건립했다. 또한 그는 전미국한인유학생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약했다. 동시에 은사인 이승만 박사과도 교신하며 그의 독립운동에도 직간접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조 목사는 염광섭, 차의석, 김원용 등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1924년에 시카고 한인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링컨애배뉴에 있는 미국인 교회 지하실을 빌려 주일예배를 보았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1927년에 캐나다 선교교회

부터 "귀국하셔서 귀하의 힘을 신학교육에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름을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지 못하고 13년만에 금의환향의 귀국길에 올라 함흥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함흥 YMCA총무로 활동하며 함흥 영생학교에서도 잠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매컬리 선교사가 자신의 모친 이름으로 1910년에 개교한 원산 마르다월슨 여자신학원에서 신학부장 겸 교수로 재직하였다. 훗날 신학원 원장으로 교회 여성지도자 육성에 전념하다 학교는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당하고 조목사도 투옥되었다. 미국에서 귀국 후 아버님은 위험인물로 항시 일경의 감시, 견제, 간섭 및 조사에 시달렸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 목사는 나라의 독립과 미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갔다. 농촌을 무척 사랑했던 조 목사는 농촌계몽과 사회개조운동을 위해 주로 기독교 강연과 부흥회를 하며 국내는 물론 멀리 만주 북간도 지역까지 순방하였다. 조 목사의 이런 애국적, 종교적 활동으로 인해 일경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괴롭혔다. 그는 나름대로 독립에 대한 확신과 함께 "식민통치를 벗어나는 길은 예수를 중심에 둔 미래세대교육이 답"이란 신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부단히 노력했다.

1930년 8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8차 세계기독교청년연례회(World Christian Endeavor) 총회가 열려 조희렴 목사는 조선기독교 대표로 참석했다. 기도하는 순서에 조 목사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치하에서 고난 받는 엄혹한 현실을 알리고 조선해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의 집요한 방해로 그 외의 독립호소활동은 봉쇄되었다. 이로 인해 귀국 즉시 함흥경찰서에 연행되어 온갖 모진 고문을 받으며 옥고를 견뎌야 했다.

귀로에 아버님은 유럽 국가들과 소련을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기행문 [노농로 국별견기/1930년 10월 7일-22일]와 [북구별견기/1930년 10월 26일-11월 16일]를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기행문에서 조 목사는 '천황이 신이 되어 예배를 받는 모순'을 지적하는 등 '정의를 억압하는 폭력은 끝내 폭력의 제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그 시대에 드문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한 기독교 엘리트로서 국내외를 넘나 들며 종교적, 교육적 그리고 독립을 위해 활약하면서 기획 있을 때 마다 학술논문도 기고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인류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진화론을 시인하여야 할까] 그리고 [여자의 사회적 지위] 등이 있다. 조 목사는 일경으로부터 집필 중단을 강요당하는 등 견제와 협박을 받으면서도 "목이 꺾일지언정 붓을 꺾지는 못한다"고 소신껏 집필하며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독립을 향한 간절함을 글과 행동으로 대신했다. 1932년 마르다월슨 여자신학원 루이스 맥컬리 원장의 종매로 조 목사는 교수 및 사감으로 재직 중이던 박금녀(1899년 9월 18일-1988년 11월 23일) 여사와 결혼

한다. 박 여사는 함남 성진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도일하여 오사카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관서교회 전도사로 봉사하다 귀국했다. 그리고 정신여고에서의 교사 생활을 거쳐 마르다월슨 여자신학원에 재직 중 조 목사와 가정을 이루어 세 아들(현규, 웅규, 명규)을 출산했다. 결혼 후 신학원을 사직하고 가사와 자녀교육 그리고 조 목사 내조에 헌신하며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발발 이후 조 목사는 일경에 의한 마르다월슨신학원의 폐교에 속수무책이었으며 동시에 신사참배 거부 및 독립운동의 연루 등으로 원산감옥에 투옥되어 3년여의 심한 옥고를 감수해야 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아버님은 석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곧 조 목사는 자유가 없는 세상에 갇히게 되었다.

무조건 복종만이 강요되는 공산독재 하에서 조 목사는 그만 아연실색했다. 그에게는 분노할 여유도 없었다. 그는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며 시급을 요하는 원산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기독교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그리고 조 목사는 신학교육 육성을 위해 송창근, 함태영, 김재준 목사 등과 함께 조선신학원(한신대 전신) 설립을 추진하고 제1대 이사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해 강의 한번 못했으며 신학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해방 후 아버님은 원산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원산 시정의 정상화와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위해 행정을 전담하는 원산시 부시장직에 추대되어 최선을 다했다. 어느 정도 정상화를 이룬 후 그 이상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할 수 없어 부시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영세 소상인과 서민들이 중심이 된 원산 남부교회를 세워 목회에 전념하며 공산치하에서 고통 받는 교인과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다. 평양에 조만식이 있듯이 원산에는 조희렴이 있었다. 조선민주당에 힘을 보태 달라는 조만식 장로의 요청에 주저없이 화답해 조선민주당 원산시 당 책임자가 되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결국 김일성 괴뢰집단의 눈엣가시



조희렴목사(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제공)

로 감시와 견제의 위험 인물이 되고 말았다.

1948년 어느날 이승만 대통령의 밀사가 조희렴 목사의 자택을 은밀히 방문했다. "목사님 월남하시지요. 각하께서 친히 목사님을 모셔오라는 분부입니다." "뜻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곳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라니요." 밀사는 의아하여 눈을 치켜떴다. "목사에게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을 버리고 어떻게 목사가 도망을 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죽음이 지척에 이르렀는데..." "아닙니다. 저는 양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또 북한의 기독교가 위험합니다. 기독교를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밀사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지만 조 목사의 뜻이 완강하여 더 이상의 설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는 물러났다.

김일성은 6.25남침을 비밀리에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민주인사들을 잡아 재판 없이 감옥에 투옥하기 시작했다. 이때 조희렴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6월 21일, 즉 6.25 남침 바로 4일 전, 밤 9시 30분경에 국가보위성 간부 둘이 집에 와서 아버님에게 "시장님이 뵈기를 원하시니 함께 가지지요."라고 했다. 아버님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외출을 준비하며 어머니에게 귓속말로 "내 차례인 것 같다."고 말하고는 그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여러곳에 수소문하여 국가보위성 원산 지부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과 옷을 챙겨 나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여 어머니와 함께 보위성 지부로 갔다. 창너머 보니 아버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옆 모습만 겨우 볼 수 있었다. 면회는 허락되지 않아 음식과 옷만 전하고 나왔다. 내가 본 그때의 옆모습이 아버님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아버님의 옆모습만 창 넘어 잠시 본 6월 22일 부터 10월 9일 아버님이 원산형무소 돼지우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오기까지 108일간 아버님의 행적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버님은 6월 21일 국가보위성에 끌려간 후 구속상태에서 조사 받고 고초를 겪으시다 재판도 없이 원산형무소로 이송되어 힘들게 옥살이를 하시다 그곳에서 무참히 처형되어 순교하셨다.

7월 중순 이후 우리 가족은 심해지는 폭격을 피해 한적한 농촌으로 피난을 갔다. 동네에 홀로 사시던 여집사님이 우리 서양식 돌집 지하실이 안전해 보이니 자신이 집도 불 겼 지하실에서 살겠다고 하여 허락하였다. 10월 10일 국군제1군단이 원산을 해방하여 시골에 피난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여집사님이 놀랍고 통곡할 이야기를 해주었다. "10월 9일 아침, 누가 정문을 노크해 나가 열어보니 조 목사님이 젊은 두 장정의 부축을 받고 힘들게 서 계셨다. 안방으로 모시고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굉음소리가 나며 곧 10여명의 인민군 장병들이 총검을 들고 집을 포위하고는 '조희렴 나와'라고 소리치며 집안으

로 들어올 기세였다. 아버님이 힘들게 일어나 입구쪽으로 걸어 가시며 '나 여기 있소'하니 그들이 아버님을 강제로 트럭에 싣고는 급히 떠났다"고 했다. 너무도 어이 없고 황당하고 애통했다.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아버님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

뒤에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니 조희렴 목사의 순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반격을 개시하여 10월 초에 국군 제1군단의 병력이 원산지역으로 진격했다. 이에 공산 괴뢰군은 퇴각하기 전 정치범들을 모두 처형하기로했다. 10월 10일 국군의 원산 점령 4일 전부터 괴뢰군은 새벽 미명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을 3일에 나누어 모두 처형했다. 새벽 어두운 시간에 죄수들을 불러 모아 놓고 햇불을 밝혀 한 사람씩 죄수를 호명하여 민사범과 정치범을 구별한 후 민사범은 족석에서 석방했다. 그리고 정치범들은 감옥소 뒷산에 일제 때 만든 방공호로 끌고가 네 사람씩 묶어 방공호 안에서 부터 바닥에 눕히고는 한 사람씩 총으로 쏘 사살했다. 생선 절이듯 죽은 사람들 위에 다시 네명을 눕히고 사살하는 식으로 방공호를 정치범들의 시체로 가득 메웠다. 그런데 조희렴 목사는 마지막 3일째 끌려 나와 호명을 받았다. 죄수들을 분리하던 간수가 아버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분인지, 하여튼 아버님을 순식간에 민사범 쪽으로 밀어서 분류하였다고 한다. 영문을 모르는 아버님은 일본이 패주하며 정치범들을 석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석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다행히 젊은 두 장정의 도움을 받아 10여 리나 되는 집까지 힘겹게 걸어 오셨다.

사실 아버님은 구속 수감되실 때, 65세의 나이에든 젊은이 못지 않게 건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다. 캐나다 유학시절 부터 습관화된 냉수 마찰을 원산의 추운 영하 14도의 엄동설한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셨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체조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셨다. 그런데 불과 100여일 밖에 안되는 구금 기간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도저히 홀로 서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 지셨다. 얼마나 형편없는 급식과 심한 육체적 학대가 있었길래 이처럼 육신이 망가질 수 있는지. 하여튼 곧 처형될 정치범들 사이에 조희렴이 없는 것을 확인한 집행자는 당황하며 10여 명의 군인들을 급히 트럭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그렇게 다시 형무소로 끌려간 아버님은 형무소의 돼지우리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고 처형되어 순교하셨다.

300여 명의 정치범들이 방공호에서 무참히 사살당했는데 그 중 여섯 분이 기적적으로 살아 나오셨다. 그 중 한분이 돼지우리에서 싸늘한 시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희렴 목사 같다고 알려와 어머니는 교회 젊은이들과 함께 형무소로 갔다. 첫눈에 시신은 심한 타격으로 얼굴은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고 몸 역


시 빼만 남은 송장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버님이 입고계신 내의가 미국유학시절 즐겨 입었던 상하가 붙은 흰 내의로 구멍이 나거나 찢지면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로 손수 고쳐서 입혔던 내의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골격이나 몸의 특징들을 확인하고 아버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즉시 교인들이 나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준비했다.

장례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원산군정장관인 김 대령을 위시해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임시로 집 뒷산 양지바른 곳에 묘를 만들어 아버님을 모셨다. 그 후 두 달도 지나기 전에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유엔연합군은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우리 가족도 미국이 보낸 S. S. Lane Victory호에 기적적으로 승선해 원산 시민 7,005명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임시로 급히 만든 아버님의 묘였으나 73년 간 한 번도 찾아 성묘를 할 수 없었던 분단의 비극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영문도 모른채 감옥에서 풀려나 젊은 두 장정의 부축을 받으며 지친 몸을 이끌고 3개월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가벼운 흥분과 흐뭇함에 고통도 잊은 채 집에 왔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다시 강제로 끌려가면서 아버님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버님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월남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미 교회를 위한다면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김일성의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조 목사는 일찍이 간파하셨다. 그럼으로 순교를 각오한 조 목사는 김일성 독재 치하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며 힘들게 버티는 교인들을 위해, 성스러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하며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목회와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셨다. 이런 조 목사의 정신과 투지를 보며 나는 그가 자신이 믿는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복한 땅 구석구석까지 전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순교할 각오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확신한다. 나는 조희렴 목사가 형무소 돼지우리에서 얼굴에 무차별 난타를 당해 죽으면서도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기대와 설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하셨다고 믿는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에 1989년 개관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 조희렴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들 300여 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면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원산출신 유명인

원산출신의 유명인으로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존 모델인 최용신(崔容信, 1909년 8월 12일 ~ 1935년 1월 23일)이 있다. 최용신은 1909년 함경남도 현면 두남리에서 태어났다. 두남리는 원산읍(오늘날의 함경남도 원산시)에서 10리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최용신은 루씨여자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지금의 원산루씨고등학교)로 진학한다.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는 당대 이름난 개신교 여학교 5곳 중 한 학교(이화학당, 배화학당, 송의여고, 호수돈여고)였다. 1928년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최용신은 1929년 협성여자신학교(지금의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본과에 진학하여 기독교계의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들다. 1931년 10월, 그는 YWCA의 파송으로 천곡(삼골; 현 안산)에서 계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34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각기병 등 여러 질병으로 3개월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다. 원래의 계획은 요양을 위해 고향인 원산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결국 천곡(삼골)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천곡(삼골)으로 다시 오게 된다. 최용신이 유학을 떠난 후 여러 어려움을 겪던 삼골은 그녀가 돌아오자 다시 안정을 찾는다.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삼골의 학생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언론에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던 중 1935년 1월 13일 화농성북막염으로 사망한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최용신 기념관(안산시 제공)

원산의 음식

원산은 예로부터 동해안의 주요항구도시로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다. 대하, 명태, 가자미로부터 오징어까지 동해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물고기가 원산에서 잡힌다. 원산잡채는 원산 앞바다에서 나는 문어, 조개류와 당면, 다양한 채소를 무친 잡채다. 먼저 문어, 소라, 조개,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 썰고 오이와 채소를 큼지막하게 잘라 놓는다. 이를 익힌당면과 함께 무쳐내면 완성이다. 우리가 먹는 잡채는 주로 시금치, 당근 등 채소 위주의 재료를 볶아서 당면과 함께 다시 볶거나 당면에 무치는 요리인 반면 원산잡채는 각종 해산물에 배즙 등을 넣어 섞어 먹는 무침의 성격이 강하다.

1930년대 중반부터 원산은 소면 제조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1935년 9월 원산의 철산옥제면소에서는 전기 모터 제면기 5대, 수동식 제면기 120여대를 갖추고 매일 1천 5백여 근의 소면을 생산했다. 소면이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결국 (당시 원산이 속해 있던)함경남도에서는 노무자에게 우선 배급하였다. 강원도·평안북도·평안남도 등지에서도 요청이 있었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6.25 이후 부산으로 피란 온 여러 함경남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원조로 들어온 밀로 함경도식 건면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 중 원산에서 개발된 냉면 제면기로 밀국수 냉면을 만들어 판매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처럼 전쟁 중에 냉면 제면기를 만난 원산의 말린국수는 이후 부산의 밀국수로 재탄생 했다.

북한에서 감은 흔한 과일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요리서들에는 강원도의 특산음식으로 감을 이용한 음식들을 많이 소개한다.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꽃감과 감으로 만든 감경단이 소비된다. 



원산잡채(출처: 평화문제연구소)



감경단(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참고

JTBC 두도시이야기 제작팀, 『두도시 이야기』 (서울: 중앙북스, 2011)
주영하,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서울: 열린책들, 2023)

공포의 일차려 “원산폭격”의 어원

함경도는 북한지역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다수의 군수공장이 있었다. 원산은 함경도 교통의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직결되는 항구로 6.25 전쟁 시 미군은 러시아의 지원가능성을 막기 위해 항만시설 파괴를 위한 방안을 생각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규모 폭격이었다.

북한 서부지역 탈환과 후퇴 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산에 대한 연합군의 포격이 거세게 이루어졌는데 원산의 주민들은 폭격이 있을 경우 엎드려 꼼짝않고 있어야 했다. ‘원산폭격’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이다. 실제 중공군의 인해전술 때 퇴각하던 해안 거점은 원산 인근 함경남도 흥남이었다. 6·25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고 한참이 지난 1968년에 미 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됐을 때는 미국 내에서 ‘원산에 대한 보복 폭격’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렇듯 원산은 ‘폭격 맞은 도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바로 여기에서 ‘원산폭격’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머리를 땅에 박는 자세가 마치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 급강하하는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폭격할 때 사람들이 엎드리는 자세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여하튼 원산과 관련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한자 표기도 ‘元山爆擊’이다. 

참고

경향신문 2022.06.06, 우리말 산책, 6·25의 아픔이 담긴 말 ‘원산폭격’

원산의 사람사는 이야기

원산에서는 얼마나 계셨죠?

김(40대 후반, 여성): 1970년대에 원산에서 태어나서 2010년까지 쪽 원산에만 살았어요.

이(30대 중반, 여성): 저도 원산에서 나서 원산에서만 살았죠.

원산 내에서 지역 구분이 있을까요?

김: 원산 시내에 원산항 옆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강을 기준으로 동쪽이랑 서쪽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강 동쪽에 신흥동, 개선동, 이런 데는 옛날부터 재일동포들도 많이 살았고, 부자들도 많이 사는 동네예요. 강 동쪽 동네는 발달이 안되고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죠.

이: 시내에 따로 구분은 없는데, 시내만 보자면 북쪽으로는 장덕동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시내가 시작되고 남쪽으로는 갈마동 주변까지 도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북쪽을 웃지구, 남쪽을 아랫지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경계가 나뉘는 거는 아닌데, 대략 덕성동, 평화동 기준으로 웃지구, 아랫지구 나뉘는 거 같아요.



동명산 중턱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 가운데 위치한 가장 높은 동은 30층에 이른다.

동네를 부르는 말은 따로 없나요?

김: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어요. 강동쪽, 강서쪽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요. 그냥 잘 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그렇게 알기는 하는데 특별한 명칭은 없어요. 이 위쪽에 원산경제대학쪽 옛날에 덕원이라고 하던 데는 이제 세길이라고 부르고 동명산쪽에 새로 아파트 생긴 동네 있구요.

청진에도 재일교포가 많다고 하는데 원산에도 재일교포가 많이 살죠?

김: 청진에 많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원산에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산은 옛날부터 일본이랑 교류가 많았잖아요. 제 주변에도 만경봉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만경봉호, 삼지연호가 들어오잖아요. 배에서 자전거, 냉장기, 냉동기 쏟아져 나오죠. 귀국선 타고 온 사람들이 원산에 그대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재일교포들이 김일성시대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재일교포들이 돈 많아지고 힘이 있으니까 김일성 정권에서 억누른거죠.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아영소

두 분 계실 때 재일교포가 귀국했나요?

김: 제가 자랄 때 귀국해서 정착하는 건 못 봤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들도 다 2세대, 3세대들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성분이 안좋아서 대학 가는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재일교포분들이 특별히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있나요?

김: 직장에 배치받는 건 일반 사람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원산에서는 건설 현장, 화장품공장, 피복공장에 재일교포들이 많이 일하는 편이었어요. 만경봉호 다닐 때는 만경봉호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만경봉호가 일본으로 떠날 때 미리 주문을 받는거예요. 저희 옆집에도 재일교포 어른신이 살았는데 오빠 자전거 사줄 때도 엄마가 재일교포 집에 가서, 여기로 치면 주문 넣는거죠? 배가 떠나기 전에 미리 돈 주고 나중에 배 돌아올 때 자전거를 받았어요. 재일교포들이 그런 일들 많이 했죠.

그러면 일본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나요? 그리고 일반인들 직업중에도 일본 관련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김: 일본하고는 교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일본이랑 교류하는 일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세길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일본으로 보내는 벗짚 가공하는 공장이 크게 있거든요. 강원도 전체에서 벗짚이 엄청 많이 모여서, 그걸

팽팽하게 묶고 반듯하게 포장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요. 제가 아는 일본 관련된 기업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관광객들 오는 큰 여관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뽑혀 와서 배치된 사람들이라 원산사람들이 많이 일하지 않아요. 원산사람들은 주로 구역별로 공장들에 배치를 받아서 일하죠.

원산에는 시장개념이 있는 재일교포도 많고, 일본물건도 다 원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암시장도 예전부터 발달했겠네요?

김: 엄청났죠. 갈마시장은 옛날부터 엄청났어요. 여기 울동시장, 신흥동시장 같은 데는 동네시장이고요, 갈마시장은 전국구 시장이에요. 완전 달라요. 원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이죠,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들 모이죠, 신의주에서 남쪽으로 오는 중국물건들도 강원도 쪽으로 올 때는 다 원산으로 모이고, 황해도 쪽에서 오는 쌀도 갈마시장에 모이고요.

재일교포들은 어디에 많이 살죠?

김: 개성동에도 많고, 해방동에도 많고, 봉춘동에도 많았어요.

그런 동네들 귀국재일교포 비율은 얼마나 되죠?

김: 절반이 넘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60%는 재일교포 출신이었어요.

혹시 화교들도 있나요?

김: 화교는 없어요. 저는 장사하러 원산에 잠깐 온 화교는 봤는데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원산에 정박한 만경봉호(사진: 연합뉴스)



만경봉호, 삼지연호가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던 게 점점 줄었잖아요? 언제부터 줄기 시작했죠?

김: 김정일 나오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거 같아요.

94년에 김일성 죽고 김정일이 정권 잡고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아니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도 80년대에 벌

써 김정일이 권력이 높았잖아요. 김정일이 권력 잡아가면서 일본이랑 교류가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던 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더니 80년대 후반인지 9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어요.

원산에서 남한 소식은 주로 어떻게 접하셨나요?

아: 아무래도 중국이랑은 거리가 머니까 중국을 통해서 오는 소식은 느리고 적겠죠. 저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라면, 양말, 초코파이를 원산에서 팔았거든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물건이 남쪽 이미지 영향을 크게 미쳤죠. 원산이 개성에서 가깝지 않은데도 그 정도예요. 적어도 황해도, 평남, 함남, 강원도에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남한에 대한 이미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파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별장 건설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원래 일제 중고 트럭을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새하얀 좋은 트럭들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차”라고 불렀거든요. 그 현대차가 정주영회장이 선물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산사람들이 일제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은데 현대차가 일제보다 좋게 생각됐죠. 현대차는 새 차이기도 하구요. 그즈음에 북한 신문에서 ‘통일의 역군 정주영 회장’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때 원산에도 정주영회장 친척들이 산다고 들었어요.

원산에 관광지들이 유명하잖아요? 갈마반도, 송도원 같은 곳 자주 가 보셨나요?

김: 갈마반도는 일반주민들은 잘 안가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갈마반도는 수산물 왔다갔다하는 동네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요. 갈마반도는 군부 높은 사람들이나 당중앙 고위층 사람들이 가는 휴양소나 있다는 거 같은데, 일반 주민은 갈 일이 없죠.

그러면 송도원은 많이 가셨겠어요?

김: 그렇죠. 송도원에는 야영장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아: 송도원은 엄청 자주 갔어요. 송도원은 입장료가 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5, 10원즈음 했던 거 같아요. 아이스크림 한 개 값이었죠.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애들은 철조망 뚫고 몰래 들어가서 공짜로 놀

송도원(사진: 조선관광)



쥬. 그리고 국제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공부 잘하면 가볼 수 있어요. 저
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도 타보고 문어다리 놀이기구도
타봤어요.

금강산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김: 차타고 두시간? 두시간반? 즈음 걸리는 거 같아요.

금강산이 멀지 않으니 원산 사람들은 다른지역 사람들에 비해 금강 산 가본 사람이 많겠네요?

김: 맞아요. 거의 70%는 가봤을 거예요. 협동농장이나 근로단체들도 일 년에 한
번씩 ‘어디 놀러 간다’ 하면 금강산을 많이 가쥬!

그러면 노동자들이 특별한 날에 모여서 야유회 하고 노는 곳이 있나요?

김: 특별한 날에는 원산 개선광장에 모여서 춤추고 다같이 무도회도 하고 그래요.
재미있어요. 개선광장은 모든 행사의 중심이에요. 김일성 죽었을 때도 원산시민
들이 나와서 조문한 곳이 개선광장이죠. 거기에 김일성 동상도 있고, 박물관도 여
기에 있어요. 박물관에 외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인들 오면 송도원 바닷
가에서 놀고 개선광장 지나서 박물관 구경하고 그래요.

원산 시내의 주요 시장과 지역구분
‘웃구역’은 남한의 맞춤형상으로는
‘웃구역’이 맞는 표현이나 북한의 맞춤형
상으로는 ‘웃구역’이라고 한다.
(Google Earth와 인터뷰를 바탕으
로 필자가 직접 작성, 지도 검색일:
2023. 08. 21)



원산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나요?

이: 바닷가에 외국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한국처럼 같이 섞여서 놀지는 않아요.

김: 러시아사람들 많이 오쥬. 저희는 어릴 때도 바닷가에서 비키니입고 다니는 러
시아사람들을 많이 봤쥬. 70년대, 80년대에도 이미 러시아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중국인들도 다녔고, 가끔 일본사람들도 다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많이 모이는
동명여관, 송도원여관 주변에 외국인들 상점도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옛날에 “바
꾼돈”을 써야 했는데 그 돈을 그 동네 상점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달러
쓰기 시작할 때 달러 바꿔주는 것도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쥬.

원산이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일본물건도 들어오는 도시이다 보니 다 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면이 많았겠네요.

김: 그렇쥬.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님도 원산 사람들을 ‘원산 멋쟁이’라고 표현하
잖아요? 외국돈도 빨리 쓰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들어온 멋진 옷들도 많았쥬. 사
람들이 북한에서 화폐개혁 다음부터 달러 썼다고 하는데, 원산은 화폐개혁 전부
터 달러를 썼어요.

원산에는 재일교포 말고도 일본말 하는 사람도 많았을까요?

이: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는 일본에 대한 터부가 있어요. 그래서 재일교포들도
자기 가족들끼리 있을 때나 일본말 하지 대놓고 일본말은 잘 안해요. 사회 분위
기 자체가 반일감정이랄까? 그런 것도 있쥬. 신의주에 가보면 중국사람들이 중국
말 자연스럽게 하고 북조선 사람들도 중국말 크게 하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중국
글씨 쓰인 데도 있쥬. 저는 그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산에서는 일본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지 못해요.

북한에서 강원도 사람들 이미지가 있나요?

김: 있쥬. “물강원도”라고 하쥬. 사람들이 물렁물렁
하다고 해서 물강원도라고 하쥬. 그리고 원산사람들
은 조금 잘산다는 우월감이 있어요. 일본사람들도
접하고, 서양사람들도 접하니까요.

이: “물강원도”는 물이 많아서도 물강원도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강성도”라는 말도 생겼
어요. 강원도에 큰 수력발전소들이 생겼거든요. 북한
에 전기사정이 안좋은데 원산에는 아침 5시-8시, 저

원산을 방문한 김정은 (사진: 조선중
앙통신)



녁8시~11시까지 전기가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봉주 내각총리 왔을 때 “여기는 어떻게 전기사정이 이렇게 좋냐?”라는 얘기를 했대요. 2010년대까지 저희 동네는 정해진 시간에는 거의 문제없이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탈북민들이랑 전기 얘기하면 ‘아 북한도 동네마다 완전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사투리가 있지요? 다른 지역이랑 차이가 심한가요?

아: 있지요! 제가 평양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함경도 사람은 우리 강원도 말투가 자기네랑 다른데, 어디 말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함경도에서 누가 “앞쪽에서 왔냐?”라고 묻는데 그 말은 남쪽지역에서 왔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평양에서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강원도 억양이 함경도 억양보다는 평안도 억양이랑 가깝나 봐요. 그런데 평안도랑 쓰는 단어는 또 다른 게 많아요.

원산이 원래 함경도여서 함경도랑 억양이 비슷할 거 같은데, 의외네요.

아: 그러게요. 함경남도 고원이라는 도시랑 강원도 천내라는 곳 사이에 다리가 있거든요. 저도 그 동네를 몇 번 가봤는데 두 도시를 나누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말이 달라요. 신기하죠!

원산에 대학들도 많은데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어느 학교인가요?

김: 중앙급 학교는 원산농대, 수산대, 경제대가 있는데 경제대학을 제일 알아줘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은 각 도마다 있는 학교들인데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중앙급 경제대학이거든요.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이야 전국적 대학이니까 학생이 전국에서 올텐데, 원산농대나 수산대학도 전국에서 오나요?

김: 네 맞아요. 중앙대학들은 전국에서 오죠. 그런데 사범대, 교원대, 의대 이런 학교는 강원도에서만 오죠.

원산농대가 원래 천주교 덕원수도원이었는데 원산사람 중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나요?

김: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원산농대가 워낙 캠퍼스가 조경도 잘 돼있고 건물도 멋있고, 학교 자체가 이쁘죠. 원산 농대 보다가 다른 학교 보면 낯았죠.

아: 저도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원산농대 건물이 북한스타일은 전혀 아니죠. 서양

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까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좋은 건물을 부술 수는 없죠. 중앙운동장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농대 안에는 먹을 게 많아요. 사과, 뽕 등등 과일들이 많아서 애들이 들어가서 몰래 따먹죠.

중고등학교는 어떻죠?

김: 1중학교가 유명하죠. 봉수동에 있는 1중학교.

그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죠?

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도에서 공부잘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체육 잘하는 아이들, 예술 잘하는 아이들도 다 1중학교로 모이죠.

그러면 예체능계 애들은 중학교부터 전공이 있는 건가요?

김: 전공은 아니고 다 똑같이 다녀요. 남한으로 치면 동아리랑도 비슷한데, 남한의 동아리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요.



공산당에 의해 몰수된 천주교 덕원수도원의 토지와 건물들은 원산농업대학에 이관되어 캠퍼스로 사용되고 있다.

원산이 공기가 좋기로 유명하다는데 원산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나요?

김: 그렇죠. 원산사람들도 공기좋다고 말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물도 맑아서 두부 만들 때 바닷물 그대로 간수로 사용해도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어요. 그리고 바다도 송도원 같은 아름다운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 계실 때 중고등학교 교사셨잖아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차이가 많죠?

김: 요새 남한사회에 교권문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돼요. 북한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만 보고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남한은 잡무도 많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죠. 또 북한은 교사도 연차별로 단계가 있어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원대 졸업하면 실습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요. 그리고 3년, 4년마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면 교사자격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애들에 집중할 수 있는 건 교사로서 확실히 좋죠.

원산 사람들은 김정일, 김정은 별장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나요?

김: 알죠. ‘저쪽에는 수령님 별장이 있다.’ 다 그렇게 알죠.

아: “1호도로”라고 있거든요. 송천동, 장덕동 사이에 고가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말 그대로 김정일 일가나 아주 특수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도로가 쪽 뻗어 있고 차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게 고가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그 도로 올라가면 감옥 같걸요?

김정은 별장은 통제가 심하겠죠? 혹시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까이 가 보기도 하나요?

김: 북한 사람들은 아예 그쪽을 볼 생각을 안해요. 수령님이 있는 다른 세상이고, 저기는 보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총과 효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수령님은 총의 대상인 동시에 효의 대상인 유일한 존재잖아요. 감히 궁금해할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총에도 어긋나고 효에도 어긋나잖아요.

아: 옛날에는 김정일 별장 주변에 통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동네에서 송도원 갈 때 별장에서 멀지 않은 길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철도망을 둘러서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북쪽 동네에서 시내 내려요려면 내륙쪽으로 돌아서 내려와야 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별장에 왔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나요?

김: 전혀요. 일하는 사람 외에는 모르고, 일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는 어디다 못하죠. 그리고 그 호텔에 동네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그런 소식을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김정은 고향이 원산이잖아요. 원산에 계실 때 김정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 북한에서 김정은 등장 직전에 ‘청년대장’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때 암암리에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그때 소문나기로는 김정은 등극하기 전에 소문 돌 때 원산농대를 두 번이나 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원산농대에 다녀갔다는 게 이해되는 게, 원산농대 교장이 김정일 총애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김정일한테 차도 선물받아서 SUV 끌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대장 얘기 나올 때, “여기가 김대장 고향이다. 이제 원산이 제 2의 평양이 될 거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김정은별장 전경 (사진: 중앙일보)

그때 변화는 없었나요?

아: 북한에서 “피치도로”라고 아스팔트랑은 다르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석유 뽑고 남은 찌꺼기인데 그걸로 도로를 만들어요. 김정은 소문 돌 때 원산에 피치도로가 많이 깔렸어요. 김정은 별장가는 길에 집들도 많이 철거하고 도로 정비도 했죠. 시내쪽은 아파트를 다 철거할 수 없으니까. 베란다쪽에 다 유리 장착하게 하고, 베란다도 반듯하게 만들었죠. 김정은 소문 돌 때 벌써 동네가 많이 변했어요.

원산에서 제일 변화한 동네는 어디죠?

김: 개선광장 주변이 제일 변화하죠. 여기 신풍경기장은 큰 경기나, 대회도 하고 행사도 해요. 공개총살도 신풍경기장에서 해요.

공개총살도 보셨나요?

김: 그럼요. 제가 교사할 때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시교육위원회에서 문건이 내려와서 “몇 월 며칠에 공개총살 있으니까 아이들 뽑아서 와라”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학년, 반별로 몇 명씩 뽑아라 지시하고,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애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죠.

공개총살 참관하러 모범적인 애들을 모은다고요?

김: 그럼요. 북한 학교들은 다 그래요. 아까 송도원야영장에 오는 애들도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여행도 “평양을 간다”, “백두산을 간다!” 하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서 가요. 공개총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사상교육 차원에서 참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도 공개총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되지’하는 생각을 하고 사상적으로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96년엔가? 그때도 군인들 몇 명이 소를 잡아먹어서 신풍경기장에 애들 데리고 가서 참관했죠. 그런데 그때는 저나 아이들이나 ‘죽을 만해서 죽나 보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

원산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 함흥, 청진 이런 도시들이 더 크잖아요? 이 중에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도시가 있나요?

김: 아니요. 나진선봉이 심리적으로 더 가깝죠. 함흥, 청진이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나진이 훨씬 발달했잖아요. 평양도 거리적으로는 더 가까운데 나진이 더 다니기가 쉽잖아요. 뱃길도 있고, 중국물건도 나진에서 들어오고, 청진이나 함흥이 큰 도시이기는 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청진이나 함흥갈 바에는 나진을 더 많이 다니죠. 저희 동네에 라이터에 가스넣어주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도 큰 가스통이 있는데 다 나진에서 들어와요.

남한이나 전 세계사람들에게 “원산은 이런 도시다”라고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원산은 멋진 관광도시예요. 할 말은 많은데 남한분들이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하하.

김: 원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하하. 🐼

(인터뷰 일시: 2023년 9월)

당신의 꽃은 어디서 피었습니까?

-북한 청춘 남녀의 대학 로맨스-



함경북도 길주출신의 여학생 영희는 1981년 8월 원산경제대학 재정과에 입학한다. 영희는 대학 입학 후 새로 사귄 미영, 영애와 가까워진다. 군단 부사령관의 딸이지만 남들 앞에서 우쭐거리지도, 각쟁이처럼 굴지도 않는 미영, 학업보다는 연애와 외모를 가꾸기에 열심인 명애가 친해진 것은 ‘출신지역’이 한몫했다. 다른 지역보다 다소 억센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셋은 기숙사의 같은 호실을 쓰며 금세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남학생 호실이 있었는데 그 호실에는 선영, 학철, 승남이 있었다. 최선영은 교우관계가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은 남학생이었다. 북한의 대학에서 소대장(반장)은 관례적으로 군대를 제대한 남

학생이 말지만 선영은 직발생(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임에도 지도력을 인정받아 소대장이 되었다. 배우처럼 잘생긴 꽃미남 학철은 배려심이 부족하여 정작 여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없었고, 승남은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노동자지구 출신으로, 온 가족이 육체노동자인데 혼자만 대학생이 된,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였다.

북한의 모든 대학은 군대 편제로 구성된다. 각각의 대학은 연대, 학부는 대대, 학부 내 학년은 중대로 나뉘어 있으며, 학년의 각 학급은 소대이다. 기숙사 생활 또한 남한으로 치면 군대의 내무생활과 비슷하다. 아침저녁마다 중대장, 대대장이 주관하는 군대식 점호가 진행된다. 당시 북한의 대학에서는 매주 있는 상학검열(학생들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주간소회)때마다 여학생들이 친한 남학생들의 옷을 다려주는 문화가 있었다. 영화는 반장인 선영의 옷을 다려주며 가까워졌고 두사람은 서로간의 호감을 확인한다. 미영은 승남을 좋아하고 명예는 다른 호실의 철영을 좋아한다. 그러나 연애에 부정적인 학내 분위기로 인해 이들은 쉽게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들 남자 셋, 여자 셋은 같이 어울려 송도원 유원지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일본에서 출항한 만경봉호가 원산 항구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구경하기도 한다. 한번은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여 여학생들에게 하이힐 가죽구두가 지급되었는데 여학생들은 하이힐을 신고 남학생들과 함께하는 왕복 두 시간 거리의 시내 나들이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 여학생들의 다리가 아프고 뒤통미가 까져서 걷기 어렵게 되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업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있는 남녀가 업어주고 업히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선영은 영화를 업고, 승남은 미영을 업고, 학철은 명예를 업기 싫어 등에 종기가 났다는 핑계를 댈다. 명예는 짝사랑하는 철영을 생각하며 구두를 들고 맨발로 걸어서 학교로 돌아온다.

개인별로 제각각 생활하고 수업을 듣는 남한의 대학과 다르게, 북한의 대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이다. 반별로 다 같이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다. 남한으로 치면 대학과 군대를 합쳐놓은 생활과 같다. 이들은 15일 간 배낭을 메고 행군을 하여 백두산 답사를 다녀오고, 일년에도 몇 주씩 농촌지원을 나가 농촌지역에서 지내며 일을 돕는다. 백두산 답사의 행군과 기차여행, 답사 여정의 동선에 위치한 학우들의 고향집 방문, 농촌지원에서 함께하는 노동과 민박, 식량서리등등 이들은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추억을 만들어간다.

6년 간의 대학생생활을 마무리하며 이들은 서로 애정을 고백하여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출신성분과 가정형편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내려놓기도 한다. 또 짝사랑하는 여성이 다른 친구와 연인

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기도 한다. 졸업 후 바로 이어진 3년간의 3대혁명소조(대학생들이 졸업즉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전국의 생산 현장으로 나가 3년간 근무하는 제도)를 거치며 이들의 관계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결국은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책은 세 명의 남학생과 세 명의 여학생이 만들어내는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청춘남녀들 간의 이야기는 러브라인, 우정, 인생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주제들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설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청춘물의 인물 구성은 남자 셋, 여자 셋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미국의 전설적인 시트콤 ‘프렌즈(Friends)’와 한국 시트콤의 효시인 ‘남자 셋 여자 셋’의 주인공이 모두 세 명의 20대 남성과 세 명의 20대 여성으로 구성된 이유이다. 실제로 친구간의 우정과 경쟁, 친소관계와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동학, 남녀간의 러브라인과 짝사랑, 질투, 학업과 진로문제, 공동체성에 이르기까지... 남자 셋 여자 셋의 구도는 시청자 혹은 독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다채로운 서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이 된다. 이 책의 독자들 또한 세 여대생의 관계, 진로, 러브라인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을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만큼 다채롭게 쓰이는 고유명사는 없을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북한은 두려움과 그리움, 위협과 측은, 형제와 적의 등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내포한 존재이다. 과거 금단의 언어였던 ‘북한’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적인 언어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북한관련 보도와 콘텐츠의 대다수가 정치적 문제이던 것에 비해 한동안 북한출신 패널들이 나와 북한의 삶을 나누는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최근 몇 년 사이 탈북유튜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북한에서 있었던 온갖 에피소드를 세상에 풀어놓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과 탈북민들의 활약은 남한주민들의 북한 이해를 위한 큰 공헌을 해오고 있다. 책의 장점은 어떠한 사실을 정리, 정제된 언어로 전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출판된 책을 선호하며 영상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정리되고 검증된 내용을 얻기 위해 굳이 책과 논문을 찾게 된다. 이것이 영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 책이 갖는 의미이다. 이 책은 북한에서 일어났던 젊은 청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386세대 엘리트들이 어떤 대학생생활을 보냈을지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금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대학생 시절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 비친 원산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원산소식-

원산 김정은 별장에 등장한 대형 유람선

올 7월 강원도 원산 김정은 별장 주변에 대형 유람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곳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원산에 위치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별장에는 숙소와 연회장 등 건물만 10여 동이 넘는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미국 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이 곳에는 6월 중순부터 60미터, 너비 11미터 가량인 유람선이 정박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곳에는 또한 길이 80미터, 너비 15미터에 수영장, 대형 미끄럼틀까지 있는 이 유람선은 몇 년째 정박돼 있다. 인근에는 새로 지은 승마장이 있는데 야간에도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30여 개의 조명이 설치돼 있다.

7천 제곱미터 넓이의 수영장과 대형 미끄럼틀, 햇빛을 피하기 위한 시설도 있다. 이 같은 시설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치품 수입은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당 39호실의 각 지부들이 활동하는데, 신분 세탁이나 제3자 거래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큰 문제 없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각으로도 불리는 김씨 일가 전용 별장은 최소 3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KBS 뉴스, 2023.07.27.)



김정은 별장에 정박해있는 대형 유람선, (사진: kbs뉴스 화면캡처)

원산사범대학서 대학생 반사회주의 공개투쟁·공개재판 열려

북한 강원도 원산시에서 대학생들 가운데 나타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공개투쟁 및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에 의하면 “6월 19일 원산사범대학에서 도내의 모든 대학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도내 대학생들 속에서 나타난 상반년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공개투쟁과 공개재판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투쟁에는 대학생 60여 명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위반 행위 등이 지적됐는데, 한 번에 20여 명씩 총 3번 연단에 올려세워 문제 행위들을 폭로하고 비판했다고 한다.

데일리NK는 “60여 명 가운데 초범이면서 경범죄에 해당되는 40여 명은 교양처리됐고, 남조선(남한) 녹화물 등을 본 것으로 문제시된 10여 명은 사안이 심각하지만 아직 예심이 끝나지 않아 수갑을 채워 다시 끌고 갔다”, “이날 공개재판에서 이미 예심이 끝나 엄중 범죄자로 낙인된 한 대학생은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3명은 유기 노동교화형, 2명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투쟁과 공개재판이 끝난 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영화가 남조선 영화보다 재미있다면 보라고 해도 안 본다’며 뒤에서 소곤거렸고, 형을 받은 친구를 둔 대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숨어서 술을 마시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참고: 데일리NK, 2023.07.06.)



북한 학생들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사진:북한선전매체 '서광' 홈페이지 캡처)

정준택원산경제대학 교수들, 학생 질문 회피·금지해 논란

북한 강원도 원산시 소재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이하 원산경제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있었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6월 초 원산경제대학 경영학부 2학년 한 학생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진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면 지금과 같이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반면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개인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교수는 “그런 식의 질의는 자체가 잘못됐다”, “공부를 헛했다”는 등의 말로 엄하게 꾸짖을 뿐 학생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학생들은 “교수가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아니냐”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소식통은 “교수들도 이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학생들의 질문에 잘못 발언했다가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 답변을 회피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없는데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그들(교수)의 속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북한 최고의 경제대학으로 일컬어지는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은 1960년 ‘원산경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1990년에 ‘정준택경제대학’으로 한차례 개칭됐다가 1997년부터는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참고: 데일리NK, 2023.06.12.)

원산 88호 교화소, 노동단련대 → 구류시설로 변경 추정

북한 강원도 원산 석현동에는 노동단련대 성격의 88호 교화소가 있다. 대북 인터넷 전문매체인 AccessDPRK는 지난해 3월 7일 보도에서 이 시설이 1985년경부터 운영됐으며, 수감 인원은 1,000명~1,500명 정도이고, 지금은 시설을 축소 또는 폐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데일리NK는 위성사진을 통해 88호 교화소 시설을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이 시설은 현재 노동단련대에서 일반 구류시설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에서 보면, 88호 교화소는 김정은 전용 원산별장에서 5.0km, 원산시로부터는 6.5km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원산 교화소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2011년 시설이 공개된 이후 탈북민 증언도 없고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바 없었으나,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C)에서는 2017년 보고서에서 이를 수용소 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림 2에서 88호 교화소에는 수감동과 작업장이 있고, 채석장을 포함하여 전체 부지 면적은 18ha 정도로 추정된다. AccessDPRK 보도에 의하면, 교화소 수감자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만 주어질 뿐, 인근 작업장에서 하루 18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간수들로부터 가혹한 상습적 폭행에 시달린다고 한다. 구글 어스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88호 교화소에서 시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타리가 철거됐는데, 아래 그림 3 위성사진에서 2012년 이후 최근 작업장에서 큰 건물들이 철거되고, 대신 크고 작은 건물들이 새로 들어선 것이 식별되었다. (참고: 데일리NK, 2022.11.29.)



[그림 1] 강원도 원산시 석현동에 88호 교화소가 있다. (사진: 구글어스 캡처, 데일리NK)



[그림 2] 엄중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88호 교화소에서 외신에 의하면 수감자들이 채석장에서 하루 18시간씩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 (사진: 구글어스 캡처, 데일리NK)

북한 조선중앙TV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9시 30분 현재 강원도 원산시내 일부 도로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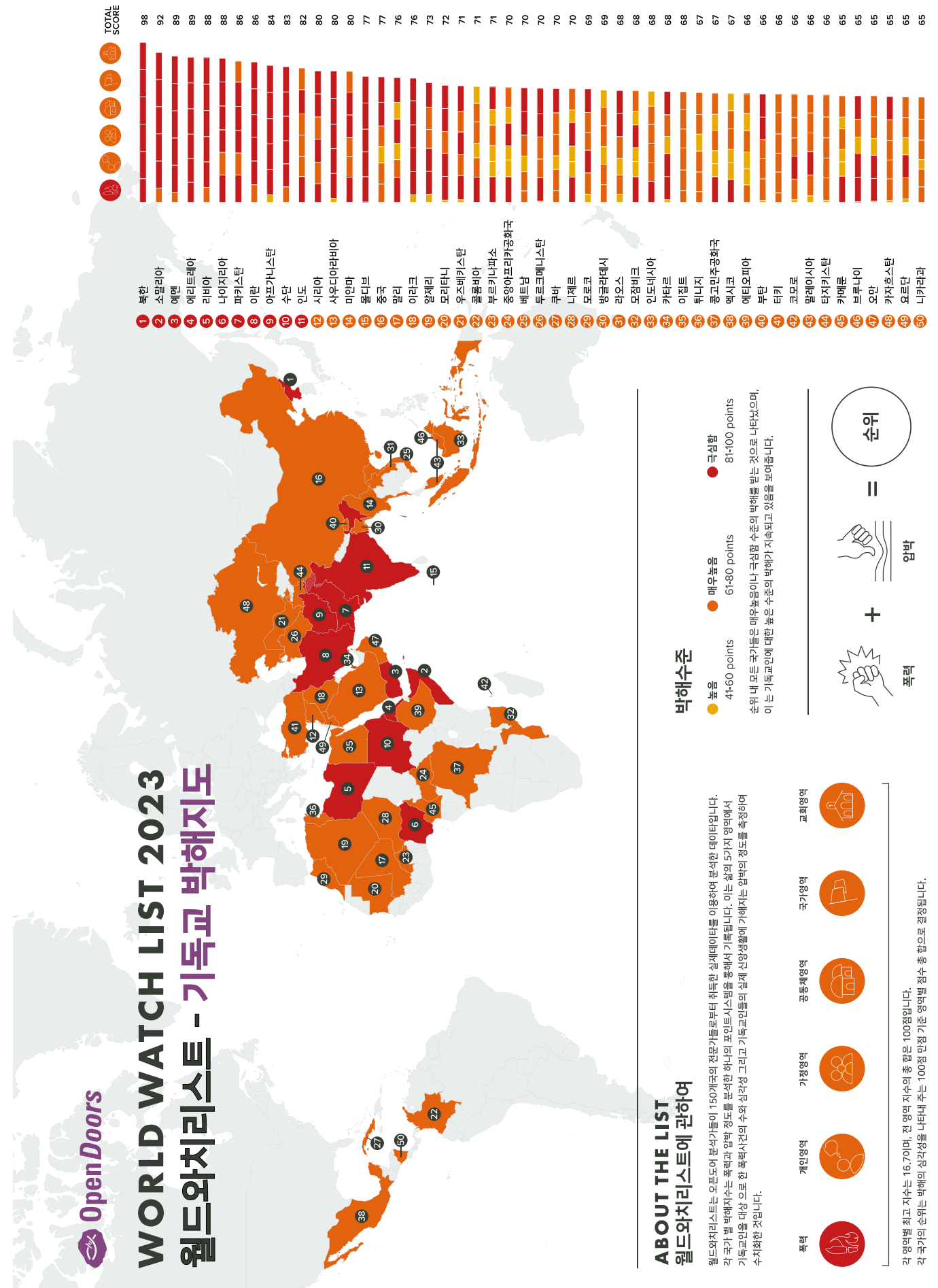


언론에 비친 원산

원산지역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와 대응소식

올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원산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는 8월 10일 이례적 새벽 방송을 통해 태풍 상황을 알리며 대응했다. TV는 '카눈'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 8시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에 324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강원도 원산에는 174mm의 비가 내렸다고 전했다.

매년 여름 원산의 수해소식이 전해지는데, 2010년대 수해 후 WFP등 국제 기구의 현장실사 소식이 자주 전해졌고, 2020년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을 휩쓸었을 때 원산은 시내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전하여 수해현장을 방문하였다. 2020년 이후로도 매년 여름 원산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심각한 피해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홍수에 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재난대응에 대한 뉴스가 주로 전해진다.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합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